

광 고

원양산업

제 1151 호
(2022년 11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원양업계, 안병길 의원 만나 현안 건의 / 4
- 나우루, 솔로몬과 참치선망 입어협상 진행 / 4
- 「2022 원양산업 통계연보」 발간 / 5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2년 10월 보고 내용 / 6
- 요리 만들기 (코다리강정) / 11



해외수산정보

- 국제유가 동향
 -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월 대비 4% 하락 / 12
- 참치어업 동향
 - 방콕 가다랑어 가격 1,600 달러 유지 / 14
 - 인도네시아 기업, 참치 벤처 해외 파트너 모집 중 / 14

-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9월 어획량 증가 / 15
- 9월 PNA 전채량 약 4만 7,600톤 / 15
- PNA, 선박일수제도 문제로 새 관리규칙에 난색 / 16
- 日 8월 냉동 참치 원어 수입 통계 발표 / 17
- 日, 대만산 눈다랑어 9월 가격 kg당 1,091 엔 / 18
- Pacificall, 참치 기업 중 최초로 GDST 테스트 통과 / 18
- 인도양에서 황다랑어 가격 하락 / 19
- 중국, 가봉 참치 산업 확대 제안 / 19
- PNA, MSC 반대 의견은 경쟁자로부터 자금 조달 / 20
- Tri Marine, 눈다랑어 MSC 확장 반대에 직면 / 20
- MSC 인증 가다랑어 제품 판매 약 30% 증가 / 21
- 독일, MSC 참치 소비 1위 유지 / 22
- Prince, 네덜란드 참치 제품 연말까지 100% MSC 전환 / 22
- 진짜 참치가 식물성 대체식품보다 나은 이유 / 23
- TUNACONS-GFW, MOU 체결 / 23
- ILO 기준 준수하는 최초의 대만 연승선 / 24
- EU-마다가스카르 어업 협정 합의 / 24

■ 오징어어업 동향

- 日 연구센터 “페루 EEZ 양륙량 39% 감소” / 25
- 日 냉동 오징어 1~9월 반입량 7만 2,114톤 / 25

Contents

■ 명태어업 동향

- 러시아 2023년 명태 TAC 설정 / 26
- 러시아 11월 1일 시점 총 어획량 약 410만톤 / 26
- 러시아 수산업계, 서방 제재에 대한 대안 모색 / 27
- 美 알래스카 명태 생산, 효율성 증가 / 28
- 美 업계 “러시아 명태 쿼터 증가, 미국 영향 제한적” / 28
- 2023년 세계 흰살생선 공급 안정적 유지 예상 / 29
- 日 “동해 명태자원 호전” / 29
- 美 소비자 알래스카 명태 선호도 증가 추세 / 30
- 러시아 최대 가공공장 ROK No.1 파산 위기 / 30
- 美 명태, 기록적 가격에도 타 단백질 대비 경쟁력 유지 / 31
- 모조 게 대신 수리미가 낚다는 연구 결과 / 31

■ 공치어업 동향

- 日 10월 말 시점 공치 양륙량 약 1만 1,000톤 / 32
- NPFC 제7차 연례회의 2023년 3월로 연기 / 32

■ 각국 수산 동향

- 제41차 CCAMLR 연례회의 종료 / 33
- 아르헨티나, 2021년 이빨고기 조업 연구 발표 / 34
- 드라이 컨테이너 운임, 정상에 가까운 수준 / 35
- 中, 푸젠성에 첫 산업용 크릴 항구 건설 / 35
- MSC, 4년 만에 새 어업 표준 공표 / 36
- 프랑스, 어업용 연료 지원 연장 / 36

- 오메가3, 수면 개선·행복 증진 효과? / 37
- FAO, 어획전략 관련 웹사이트 개설 / 37
- 수산물, 낮은 탄소 배출량·높은 영양 밀도 / 38
- 전세계 어업 부문에서 연간 10만명 이상 사망 / 38
- 덴마크, 식품 기후영향 표시 라벨 도입 추진 / 39
- 노르웨이-러시아 대구 쿼터 감축 합의 / 39
- 日 수산청, 2021년 수산백서 발표 / 40
- 10월 노르웨이 고등어 수출 호조 / 40

■ 쉬어가는 난 (시)

- 바닷가에서-2 〈정연복〉 / 41

■ 국내 수산 정보

- 10월 오징어 국내 동향 / 42
- 10월 명태 국내 동향 / 44
-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 46
- 美 MMPA 동등성 평가 1년 연기 / 46
- 윤석열 대통령,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단체 접견 / 47
- 세계 12개 국가에서 한국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린다 / 47
- 제41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총회 결과 / 48
- 제3회 SOI-세계 해양-수산 국제기구 토론회 개최 / 49
-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 특별점검 / 49
- 김명년 전 대립수산 회장 별세 / 50

원양업계, 안병길 의원 만나 현안 건의

해기사 구인난, 법정승무기준 완화 등

우리 협회와 원양업계 대표들이 지난 11월 10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과 만나 원양업계 당면 현안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이날 만찬 자리에는 안병길 의원, 우리 협회 윤명길 회장, 신현애 해외협력본부장, 이형균 경영지원본부장, 동원산업 이명우 대표, 동원수산 왕기철 부회장, 사조산업 김치곤 대표, 신라교역 김호운 대표, 정일산

업 전선중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우리 협회와 업계는 해기사 구인난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하고 법정승무기준 완화 등 대책을 건의했다.

한편, 우리 협회 해외협력본부장과 경영지원본부장은 지난 10월 24일 안병길 의원실에 방문해, 임성재 수석보좌관, 최원영 선임비서관을 만나 원양산업 현황 및 현안사항을 설명했다.

나우루, 솔로몬과 참치선망 입어협상 진행

호주 브리즈번에서 10월 23, 24 개최

2023 어기 한-나우루 참치선망 입어협상이 지난 10월 23일, 한-솔로몬 참치선망 입어협상이 10월 24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진행됐다.

우리 측은 동원산업 이상범 부장(수석대표), 사조산업 이경영 부장, 신의섭 대리, 신라교역 박정국 차장, 우리 협회 백상진 주임 등 5명이 참석했으며, 나우루 측은 Hon. Wawani Dowiyogo 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6명, 솔로몬 측은 Hon. Nestor Giro 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5명이 각 입어협상 회의에 참석했다.

입어협상에서는 2023 어기 조업일수 배정·매입 가격 등 입어조건이 협의됐다.

입어 약정 서명은 추후 이메일로 추진될 예정이다.



「2022 원양산업 통계연보」 발간

생산, 수출 등 다양한 원양산업 통계자료 수록

우리 협회는 원양산업 각 부문의 실적을 총망라한 「2022 원양산업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에는 2021년도까지의 수치를 바탕으로 원양산업의 어선, 선원, 생산, 수출, 어가, 경영체 추이 등 주요 통계가 수록되었다.

이와 함께 원양산업의 역할, 원양어업 어장도, 국가별 해외합작 원양산업 진출 현황도, 국제수산기구

해역도 등 다양한 자료들을 담았다.

또한,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 및 수출입 동향, 주요국 및 수산지역기구 수산통계 등 참고자료도 수록했다.



회원사 대표자 · 주소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주)가나마린 (대표자)	양인석	정현욱
신라교역(주) (주소)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2 (석촌동, 신라빌딩)	서울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6길 30(고덕동)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10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관

가. 다카르 자치항 확장

- 세네갈 다카르 자치항이 비상대책 시행 조치의 일환으로 중앙 분리대를 제거하여 4번 부두에서 5헥타르의 면적을 확보.
- 당국에 따르면 이를 통해 항만 혼잡이 해결되고 신속한 화물 운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다카르	1,069 €/MT	경유	'22.10.26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파운드, lbs)	가격(유로/톤)
가다랑어	3.4kg	1,544
	1.8kg	1,492
	1.5kg	1,338
황다랑어	10kg	1,698
	3.4kg	1,595
	1.8kg	1,492
눈다랑어	10kg	1,544
	3.4kg	1,544
	1.8kg	1,492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관

가. 피지 출·입국 관련 항공편

- 일본 노선을 제외한 전항공편이 오픈되었으며 피지는 입·출국 시 코로나 테스트(RAT 또는 PCR) 필요 없음.
- 단, 피지 검역청의 요청사항으로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2차접종까지완료), 코로나커버 보험증서를 제시해야함. 피지 ATS의 요청으로 출발지 또는 경유지 공항카운터에서 이를 체크할 수 있고 없을 경우 피지행 출국이 거부될 수 있음.

나. 피지 출·입국 관련 선박편

- 선박 입항 전 코로나 접종 리스트 및 증명서를 기본적으로 당국에 제출하여야함. 미접종자가 있어도 선박입항은 가능하되 전원 미접종이면 부두접안은 안되고 앵커링을 해야 함.
- 선원들의 상륙은 금지되나 선박관련 외부인(기술자, 검사관 등)의 선박출입은 수속 후 가능함. 일부선원 미접종 선박은 부두접안이 가능하나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의 상륙은 금지됨.
- 단, 1차 접종자는 상륙을 원하는 경우에 코로나 검사 후 하선하여 2차 접종을 받아야함. 귀국할 시에는 2차 접종 후 선박 혹은 지정 호텔에 1주



일 격리 후 귀국가능.

- 미접종자는 상륙, 하선, 귀국이 아예 불가함. 2차 접종 완료자는 제약 없이 모든게 다 허용 됨.
- 피지에서 승선하기 위해 입국 시에는 피지 입국 허가서가 필요하며 신청 시 여권사본, 항공여정표, 백신증명서가 필요함.

다.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원조, 2020년 최고치 경신

- 프로젝트 책임자에 따르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원조는 2019년 대비 33% 증가했으며 2008년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 개발 자금 조달은 2019년 31억 달러에서 2020년 42억 달러로 증가.
-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직접 예산지원과 같은 형태의 현금성 원조가 증가 추세.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자간 기부자도 태평양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중국의 키리바시·솔로몬제도 지원도 증가 중.

라. 피지 내년도 경제성장률 6% 예상

- 현재 관광업 위주로 개선 중이며 총선 이후 건설 활동 반등, 기타 서비스, 산업 부문 등의 상승세가 내년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마.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3,000	로인가공용(PAFCO)

바.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TOTAL	1,300달러/MT	MGO	'22.11.10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

가. 어업 동향

- 금월 사모아 및 연근해 어장인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평균 어획율은 날개다랑어 0.4~0.9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 0.2~0.3톤임.

나. "탈로파 패스 Talofa Pass" 의무화 해제

- 오는 11월 15일부터 그동안 아메리카 사모아 입국자들에게 의무화 되었던 "탈로파 패스 Talofa Pass"가 더이상 의무화되지 않고 선택사항이 되었음. 입국자들은 더이상 탈로파패스에 연관된 보건부 및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 대부분의 코로나 COVID-19에 연관된 질문사안은 제거되었으며, 더이상 COVID-19 예방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됨. 다만, 입국자/여행자는 간단한 건강 설문지만 작성하면 됨.
- 온라인으로 "건강 설문지 Health Questionnaire"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아메리칸 사모아에 입국이 거부되지는 않지만, 온라인 설문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람은, 도착 시 "건강 설문 조사 Brief Health Survey"에 응해야 함.
- 발표된 새로운 시행령에 의거, 변경된 사항이 적용되는 첫 입국 항공편은 11월 17일임.
- 코로나 대응팀 "COVID Task Force"는 총독에게 아메리칸 사모아 출입국 관련 시행을 2022년 12월 1일부터 팬데믹 이전 before Pandemic 상태로 돌릴 것을 권고했음.



다. 미국참치선주협회, 미국 국립해양수산청의 WCPFC 제안서에 강력 반대

- 미국참치선주협회(ATA)는 아메리칸 사모아에 기반을 둔 미국 선망 선단에 영향을 미치는 제안된 규칙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음.
- 미국 국립해양수산청(NMFS)은 올해 9월 ELAPS(Effort Limit Area for Purse Seine)에서 선망 결합 노력 한도의 사용을 제거하고, 공해와 미국 EEZ 내에서만 어획될 수 있는 558일, 1,270일이라는 두 가지 별도의 제한을 만드는 제안된 규칙을 발표했음.
- ATA 주장은 다음과 같음. △NMFS 자체의 이전 분석에 따라 WCPFC에 따른 미국 의무를 준수하는 데 불필요, △과학적 또는 보전 목적이거나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음, △중요한 국제 접근 협상에서 미국 산업의 협상 위치에 매우 불리, △아메리칸 사모아에 기반을 둔 미국 참치 선망 선단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아메리칸 사모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더욱 기여할 것, 행정 절차법(APA)의 조항, 미국 법률의 기타 특정 조항, 특히 서부 및 중부 태평양 수산 위원회(WCPFC)에 대한 시행 법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행한 행정 명령을 위반.

라.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550	
눈다랑어	라운드	1,350	
가다랑어	라운드	1,350	

마.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조사일
Clipper, Oil	\$4.29(gallon)	'22.11.8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관

가. 선원 동향

- 주요 어종인 오징어 조업이 없는 연말에는 선박의 수리가 이뤄짐.
-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선원들이 한국/인도네시아로 장시간 귀국하지 못하고 지쳐가고 있음. 심지어 하선하여 당분간은 승선계획이 없는 선원들이 늘어가는 추세임.
- 최근 오징어 어가 및 조업량이 감소하여 소득에 타격이 생기자 타 어장으로 넘어가려는 선원들도 증가하고 있음.

나.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유종	조사일
Z	1,354달러/MT	MGO	'22.11.1

다.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HOKI	2L	2,650	Sea Jho Co LTD.
	L	2,650	
	M	2,300	
	S	2,150	
LING	3L	3,400	
	2L	3,350	
	L	3,100	
	M	2,950	
	S	-	
WAREH OU	2L	2,550	
	L	2,550	
	M	-	
	S	-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

가. Boankra 내륙항 2024년 3월까지 완공 예정

- Nana Akufo Addo 가나 대통령은 약 18년간 도면을 그려온 소위 'Boankra 내륙항 프로젝트'로 불리는 미화 3억 3,000만 달러 규모의 Boankra 통합물류터미널 사업이 2024년 1분기까지 완료될 것으로 확신했다.

나. Takoradi 항에 선박적재기, 에코호퍼가 막 도착

- 가나 항만청(GHPA)은 서아프리카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항구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2기의 선박적재기와 에코호퍼를 Takoradi항에 도입했음.
- 운영이 되면 항구의 운항 회항 시간을 크게 개선하고 부두에서의 선박 회항 시간을 개선하며 정박지에서의 선박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임.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2,200	
	10kg 하	1,760	
가다랑어	3.4kg 상	1,400	
	1.8kg 상	1,350	
	1.5kg 상	1,200	
	1.5kg 하	1,050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기타
양상급유	1,290달러/kl	MGO	'22.10.31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

가. PNG 입어일수 이전 성공

- 지난 7월경부터 원양협회 및 선사가 PNG 수산청에 요구해 왔던 입어일수의 PNG 이전 관련, 현지 당국은 계속하여 거부해 왔음. 한국 선망사들은 라니냐로 인해 참치의 PNG 수역 조업이 절대적이었던바, 9월 말경까지 어쩔 수 없이 NFA에 정가의 조업일수를 매입 후 조업해 왔음.
- 10월말 2개 선사의 PNG 전격 방문을 통해, 400일의 일수를 투발루 및 나우루로부터 파푸아뉴기니로 이전에 성공함.

나. 한국 대사관 방문

- 현재까지 이어온 한국 원양협회 및 선사들의 조업일수 매입 관련한 활동은 원양협회를 통한 파푸아뉴기니 수산청과 매년 협상을 통해 금액을 결정하는 단순한 경로였으나, 금년에는 수산청에서 한국 측에 단순입어 협상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파푸아뉴기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들림.
- 특히, 파푸아뉴기니 정부에선 그간 일본에서 현지에 지역별로 수산시장의 설립에 지난 몇 년에 걸쳐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한 일수의 매입에 있어서도 한국의 처음 매입일수와 일본의 매입일수를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함.
- 이에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일본 어선의 어획물 전제에 편의를 봐주는 형태로 보답하고 있음.



- 현지 파푸아뉴기니 수산청 직원의 언급을 빌리자면, 일본은 협상에서 많은 협조를 해오고 있으며, 협상 테이블에 협회만이 아닌 JAICA, 일본 수산부, 주일대사관 모두 동시에 참석을 한다고 함.
- 이에 수산관은 한국에서도 ODA 및 EDCF 차관을 통해 파푸아뉴기니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그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가는 과정임에도 협상에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한국 대사관에도 다음번부터는 공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 파푸아뉴기니는 남태평양에서 가장 큰 국가이며 특히 참치조업에 있어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임. 이웃 솔로몬 아일랜드에는 KOICA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파푸아뉴기니에서는 1997(?)년 봉사단원의 사고로 인하여 그 명맥이 끊어진 상태임.
- 하지만 파푸아뉴기니는 국가의 크기나 자원 확보 및 남태평양의 중요 국가인 점을 고려, 한국 정부의 관심 및 KOICA의 점차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다. 어류가격 동향

어종	단가	규격	기타
생물 자연산 바다가재	31.58달러	0.6~1kg	
	41.63달러	1~1.5kg	
	53.12달러	1.5kg 이상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유종	조사일
TWL Logistics Ltd	1.0688달러/리터	Diesel	'22.11.7

〈계재순서 :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코다리강정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 동태 1마리, 알 1컵, 고니 1컵, 두부 1/3모, 대파 1대, 애호박 1/4개, 청양고추 2개, 홍고추 2개, 무 1/3개, 쪽갓 1개, 멸치육수 500ml

<양념장 재료>

다진마늘 2큰술, 간생강 1/3큰술, 새우젓 1.5큰술, 국간장 5큰술, 고춧가루 3큰술, 고추장 2큰술, 된장 1큰술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무는 나박하게 썰고, 애호박과 두부는 편 썰고,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는 어슷썬다.
- ② 양념장 재료를 섞어 만든다.
- ③ 냄비에 무를 깔고 동태를 넣은 후 멸치육수를 넣어 끓인다.
- ④ 3의 육수가 끓으면 양념장을 넣고 알과 고니를 넣어 한소끔 끓인다.
- ⑤ 썰어 놓은 채소와 두부를 넣고 끓인 후 쪽갓을 올려 완성한다.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월 대비 4% 하락 월 평균으로 보면 2% 상승

최근 국제유가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중국 방역 규제가 일부 완화되는 석유 수요에 긍정적인 상황과, 중국에서 연일 1만 명 이상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부정적인 상황이 혼재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14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9.50 달러, WTI 가격은 85.87 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93.14 달러를 기록했다.

11월 10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벙커 가격은 톤당 1,045 달러로 10월 10일(1,090 달러) 대비 4% 하락했다.

11월 평균(11.1~11.10) 가격은 1,064 달러로 전월 평균(10.1~31) 1,040 달러 대비 2% 상승했다. 전년 11월(10.1~10.31) 평균과 비교해서는 56%, 전전년 11월과 비교해서는 187% 상승했다.

2022년 평균(1.1~11.10) 가격은 1,047.01 달러로 전년(1.1~12.31) 평균 대비 79% 상승, 전전년 평균 대비 171% 상승했다.

OPEC은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 수요 전망치를 종전보다 10만 배럴 하향한 255만 배럴로 제시했다. 4월 이후 다섯 번째 하향이다.

OPEC은 "세계 경제는 4분기 상당한 불확실성과 증가하는 도전의 시기에 진입했다"며 "하방 위험에는 치솟은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많은 지역에서의 높은 정부 부채, 지속하는 공급망 제약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OPEC은 내년 석유 수요도 224만 배럴로 전망하며 종전 전망치보다 10만 배럴 낮췄다.

반면, 국내 증권사들은 단기 유가 강세를 전망했다.

NH투자증권의 11월 14일 리포트에 따르면 향후 12개월 국제 유가(WTI 기준) 예상 범위는 배럴당 80~120달러이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 세계 석유 시장 수급에서 다시 공급 부족 확대가 예상되는 2023년 1분기까지는 배럴당 100달러 돌파를 목표로 하는 유가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천연가스와 석탄 대체용 수요가 확대되는 난방 시즌에 진입한 가운데 전 세계 석유 소비는 세계 2위 소비국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가능성까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에너지 가격 안정화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가격 안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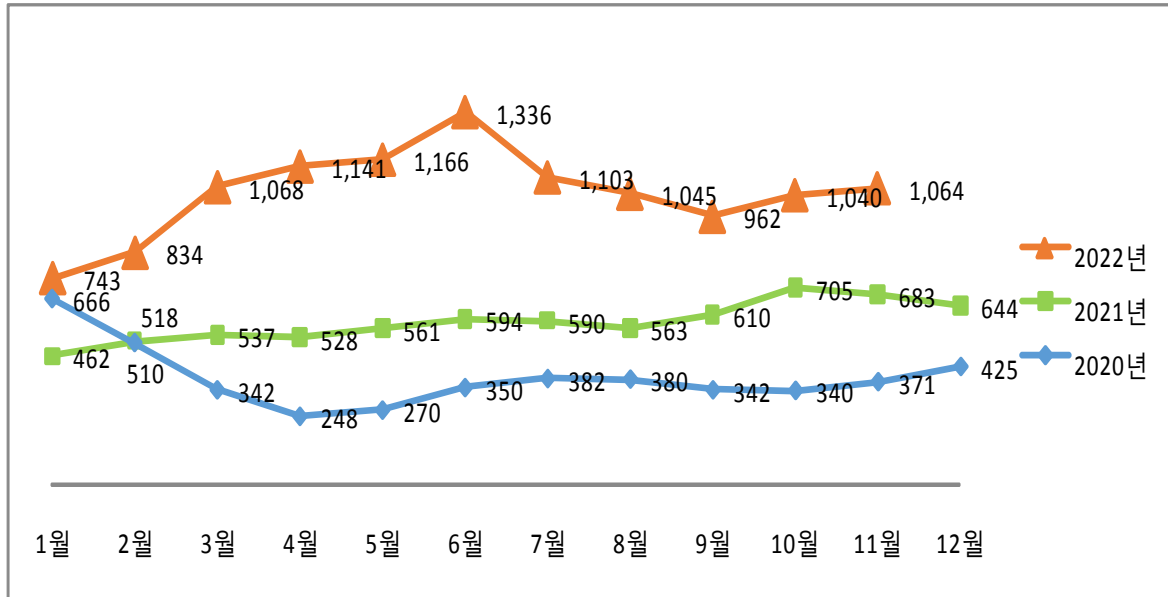
김소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은 전략비축유 추가 방출을 통해 에너지 가격을 잡으려고 하지만 원유정제투입량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아 가솔린 및 디젤 가격 안정화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에너지 시장은 다가오는 겨울철 계절적으로 증가할 난방 수요에 대해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셰일 생산업체의 원유 생산 증대량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독립 셰일업체들은 비용 상승과 노동력 부족으로 올해 4분기와 내년 원유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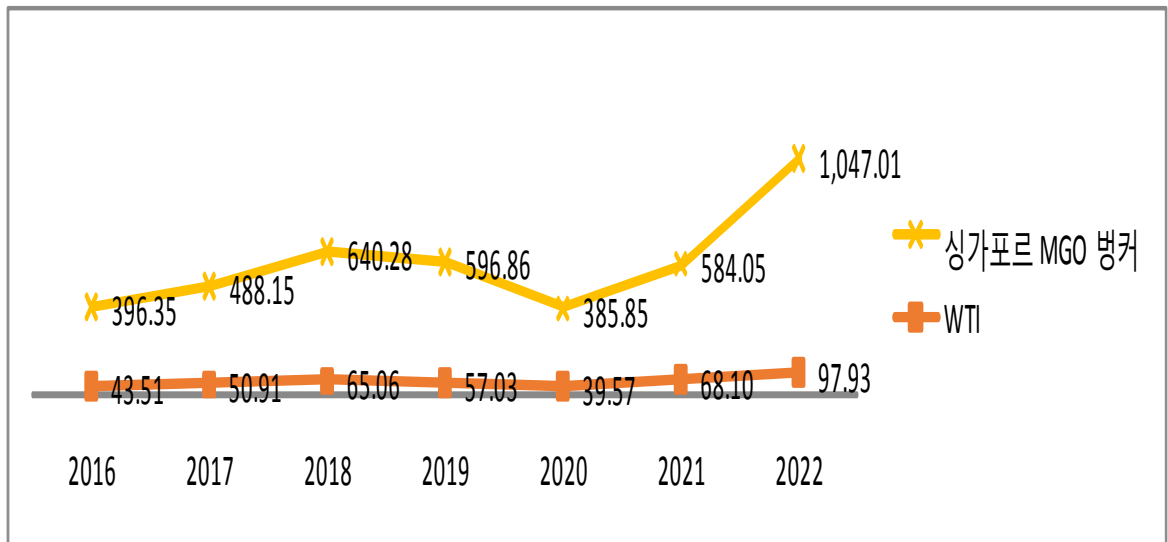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와 가격 상한제 도입도 에너지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김 연구원은 "가격 상한제 도입은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천연가스 비용을 더 지불하고자 하는 국가로의 공급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 평균 싱가포르 벙커 가격



연 평균 MGO 벙커, Brent, WTI 가격





방콕 가다랑어 가격 1,600 달러 유지

FAD 조업 금지 해제 이후 공급 급증 징후 현재까지 없음

방콕 시장에서 바이어와 선망선주들이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며 가다랑어 가격이 톤당 1,600 달러에서 유지되고 있다.

중서부태평양에서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거나 방콕 병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는 아직 없다.

방콕 참치캔 가공업체들의 수요는 그저 그런 수준이며 공급도 평균적인 수준이다. PNA 항구에서 전채된 참치는 4만 8,000톤이며 이미 태국 항구에 양륙되었다. 방콕 참치캔 가공업체들이 한 달에 4만 1,000에서 4만 2,000톤 정도를 처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양은 태국의 원재료 수요를 거의 채울 수 있다.

한 중계업자가 10월 24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방콕 가다랑어의 11월 가격은 톤당 1,500 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 구매자들은 톤당 1,500 달러에 가까운 가격을 원하지만 중계업자는 톤당 1,600 달러에 가까운 가격을 원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방콕 가다랑어 가격이 하락세라는 점은 모두 동의했으나, 어느 정도로 하락하고 언제까지 하

락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일부는 방콕 가다랑어 가격이 몇 달 내로 톤당 1,400 달러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서부태평양 황다랑어의 방콕 공급은 중서부태평양 황다랑어 어획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었다. 몰디브 참치 채낚기선이 기록적인 양의 가다랑어와 황다랑어를 어획했고 현지 생산자가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잉여분을 태국 캔 가공업체에 판매해 인도양 황다랑어 공급이 증가했다.

한편, 에콰도르 만타의 가다랑어 가격은 톤당 1,850~1,900 달러 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방콕-만타 두 시장의 가격 격차는 더욱 커졌다. 한 소식통은 “금어기(veda)가 시행 중이고 올해 관측되었던 것처럼 어획량에서 황다랑어의 비율이 높게 유지되는 동안, 앞으로 수개월 간 가격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1월 1일자,

UndercurrentNews, 10월 26일자

인도네시아 기업, 참치 벤처 해외 파트너 모집 중

중고 트롤선 15척 매입

인도네시아 에너지기업 PT Ratu Praba Energy 사(社)가 참치 조업 사업을 추진할 해외 파트너를 모집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이탈리아 공급업체로부터 중고 트롤선 15척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s, 2022년 10월 28일자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9월 어획량 증가

조업 활동 상당분 PNA 북서부 수역으로 이동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단 프리스쿨 조업 9월 어획량이 8월 대비 증가했다. 어획량 증가의 주원인은 집중적인 조업 노력과 마이크로네시아(FSM) 수역 가다랑어 어획량 증가이다.

9월의 전반적 조업 노력은 8월 대비 10% 증가했다. 선단이 공해뿐만 아니라 나우루협정당사국(PNA) 수역에서 3,700일에 가까운 조업일수를 사용해 올해 최고 수준의 조업 노력을 보였다. PNA에서 판매하는 조업일수의 약 95%가 사용되었다.

조업 활동의 상당 부분은 적도 쪽으로 향해 PNA 북서부 수역으로 이동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FSM에서 가장 많은 조업 노력이 있었고, 이 수역에서 스쿨조업에 사용된 조업일수는 전체의 60%인 2,000일 이상이였다. 선망선단은 키리바시 수역에서도 조업을 늘렸다. 주목할 만한 점은 어선의 대부분이 파푸아뉴기니(PNG) EEZ에서 지난 수개월간 조업 후 인접한 FSM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PNG 군도 및 EEZ에서의 어획량은 2019년 10월 이후 가

장 낮은 수준이다.

PNA EEZ와 공해의 총 선망어업 어획량은 8월 대비 13% 증가한 8만 6,471톤이다. 그러나 여전히 2019~2020년 9월 어획량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참치 어획량은 어업 노력을 광범위하게 반영했다. FSM 수역에서는 약 5만 3,000톤이 어획되었다. 키리바시의 어업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역 스쿨조업 어획량은 1만톤 미만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어획량은 PNG, 나우루, 마셜제도에서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어획량은 FAD 금지로 인해 지난 수개월 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5월 어획량 약 15만 톤에 비해 40% 이상 감소했다.

9월 가다랑어 일일 평균 어획량은 약 20톤으로 8월과 비슷했으나, 2021년 9월에 비해 훨씬 적다.

9월 황다랑어 일일 평균 어획량이 대형과 치어 모두에서 증가했으나 총 어획량은 여전히 최저치에 가깝다. 9kg 이상 황다랑어 일일 평균 어획량은 2톤 미만이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0월 27일자

9월 PNA 전재량 약 4만 7,600톤

전월 대비 12% 감소, 지난해보다는 증가

나우루협정당사국(PNA) 항구에서의 9월 선망선단 전재량은 8월 대비 12% 감소한 4만 7,600톤이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적은 월별 전재량 중 하나이다. 다만 2020년, 2021년 9월 전재량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

전재 작업은 4개국 항구에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마이크로네시아(FSM) 항구는 8월 대비

5,000톤 증가한 1만 7,500톤을 전재했다. 키리바시 전재량은 지난달과 거의 동일했고 마셜제도 마주호항의 전재량은 8월 대비 2,000톤 증가했다.

파푸아뉴기니(PNG) 마당, 라바울항 등의 전재량은 8월 대비 50% 감소한 1만 1,000톤을 기록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0월 28일자



PNA, 선박일수제도 문제로 새 관리규칙에 난색 구속력 없는 방향 원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가다랑어 관리 절차(Management Procedure, MP)를 검토할 예정이나, 나우루협정당사국(PNA) 측은 구속력 여부로 인해 이를 이행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해당 조치는 11월 27일~12월 3일 동안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될 WCPFC 제19차 연례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그러나 PNA는 이것이 불변의 엄격한 규정 이 아니라, 보존·관리 조치를 정할 때 고려 가능한 항목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관리 절차(MP) 또는 어획 전략(harvest strategy)은 관리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뮬레이션된 규칙 집합으로, 관리 조치 구현을 위한 데이터·접근 방법론·어획통제규칙(HCR) 등이 미리 명시되어 있다. 어획통제규칙은 대상 어종의 자원 상태에 따라 가능한 어획의 정도를 결정하는 사전합의된 가이드라인이다. MP 사용의 장점은 사전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협상이 과학에 근거한 권고안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퓨 자선신탁 국제어업 프로그램 담당자인 Glen Holmes는 PNA가 가다랑어 MP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력을 갖는 것에만 반대하며, PNA의 제안은 향후 6년간 시범적으로 MP에 동의한 다음 MP 권고안을 그 다음 열대참치 조치를 위한 협상에

서 하나의 논점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olmes는 PNA가 제안서에서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며 가다랑어 MP에 대한 시험 준비 단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안은 보존·관리 조치를 개정할 때 MP의 결과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지만 구속력은 없다.

제안서에 따르면 이를 통해 모든 CCM(위원회 구성원, 협력자, 비회원)이 가다랑어 관리 절차 채택에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 시험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아직 세부사항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거나 시간 경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로 합의된 요소를 허용할 수 있다.

제안서에는 가다랑어 참치에 적용되는 현행 관리 방식이 MP의 허용어획량 방식과 맞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PNA가 어업에 대규모 변화를 초래하는 HCR을 지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PNA는 회원국 EEZ 내에서 조업하는 일수에 따라 어선이 비용을 지불하는 '선박일수제도'를 사용한다. 이는 '총허용노력량제도(total allowable effort system)'로, MP에서 채택하는 '총허용어획량제도(total allowable catch system)'와는 다른 방식이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s, 2022년 10월 28일자



日 8월 냉동 참치 원어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눈다랑어 160톤 수입

어종·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누계
날개 다랑 어	한국	113	6	16	96	44	98	158	179	58	768
	대만	625	298	49	951	-	635	412	804	3,200	6,974
	바누아투	-	1	71	522	436	301	-	-	5	1,336
	기타	15	15	-	2	26	146	45	315	544	1,108
	소계	753	321	137	1,569	506	1,179	614	1,298	3,807	10,184
황다 랑어	한국	221	210	596	513	539	163	331	396	192	3,161
	중국	47	284	120	430	550	553	207	165	108	2,464
	대만	603	1,031	1,318	2,425	1,603	1,601	617	1,183	937	11,318
	필리핀	123	-	131	493	69	50	-	98	346	1,310
	인도네시아	-	-	-	-	-	-	25	-	14	39
	미국	-	-	-	-	-	-	-	-	-	0
	바누아투	148	24	72	103	248	249	381	390	330	1,945
	피지	23	50	-	-	-	68	62	9	23	235
	키리바시	29	-	-	-	101	135	33	138	67	503
	마셜제도	551	-	149	50	51	50	-	50	68	969
	기타	564	587	568	1,316	410	815	555	504	692	6,011
	소계	2,309	2,187	2,954	5,329	3,573	3,685	2,210	2,933	2,777	27,958
눈다 랑어	한국	11	30	27	113	412	299	255	160	26	1,333
	중국	177	467	502	592	339	1,409	574	410	711	5,181
	대만	1,372	2,158	2,438	4,084	1,632	3,329	1,060	2,671	1,616	20,360
	세이셸	103	874	310	792	526	671	177	353	96	3,902
	바누아투	138	318	47	629	490	790	114	286	71	2,883
	기타	135	32	207	110	239	156	537	27	229	1,672
	소계	1,937	3,880	3,531	6,319	3,638	6,653	2,716	3,906	2,749	35,329
남방 참다 랑어	한국	449	-	-	-	-	-	-	-	-	449
	대만	95	5	-	2	4	1	-	8	89	204
	호주	-	-	-	-	-	-	1,547	1,243	2,949	5,739
	소계	544	5	-	2	4	1	1,547	1,251	3,038	6,391

* 기사 출처: 일간수산업경제신문, 2022년 11월 7일자



日, 대만산 눈다랑어 9월 가격 kg당 1,091 엔

지난해 대비 21% 상승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참치류의 9월 수입실적은 신선·냉장 제품 수입량 602톤(2021년 동월 대비 59% 증가), 수입 금액 13억 2,500만 엔(101% 증가), 냉동 제품 수입량 1만 6,495톤(9% 증가), 수입 금액 182억 1,700만 엔(31% 증가), 가공품 수입량 4,743톤(28% 증가), 수입금액 38억 5,200만 엔(71% 증가)으로 지난해 대비 증가 추세였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의 9월 수입량은 2,749톤(1% 감소)이며, 1~9월 누적 수입량은 3만

5,329톤(4% 증가)이다.

냉동 눈다랑어의 9월 단가는 kg당 1,091 엔(21% 상승)으로, 1,100 엔 대 도달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수입량의 다수를 차지하는 대만 선단의 인도양 조업은 9월 이후 한층 더 감소한 것으로 관측되며, 연초 후 반입량 추가 감소도 예측된다. 이로 인해 대만산 눈다랑어 단가는 내년 2월부터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11월 7일자

Pacifical, 참치 기업 중 최초로 GDST 테스트 통과

추적가능성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용

나우루협정당사국(PNA)의 시장개발기업인 Pacifical은 공급망에서 수산물에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게 생산되었음을 데이터로 증명하는 '수산물 추적가능성 글로벌 대화(GDST)' 역량 검증을 최초로 통과한 참치 기업이 되었다. Pacifical은 몇 달 전 GDST에 지원한 최초의 참치 기업이 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역량 검증을 통해 Pacifical은 GDST 표준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확보할 역량이 있음을 증명했다. 이러한 역량에는 올바른 형식으로 정보를 수신·전송하고 표준화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Pacifical이 사용하는 'SmarTuna'라는 온라인 플랫폼은 지속가능한 태평양 참치 가치 사슬에서 최적 가시성, 검증가능성, 추적가능성 및 증명 등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IT 시스템이다.

GDST는 '그물망에서 선반까지' 수산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글로벌 표준을 시작했다. Pacifical은 2021년 GDST와 협업을 시작해 사상 최초의 검증 도구 시범 단계에 참여했다. 해당 도구는 GDST 호환 데이터의 자동 컴퓨터-컴퓨터 간 공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프로세스는 'SmarTuna' 플랫폼이 GDST 프레임워크에 따라 데이터를 공유하는 검증된 기능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GDST 출범 이후 약 105개 기업·단체가 이들의 표준을 채택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0월 19일자



인도양에서 황다랑어 가격 하락

판매 부진 속 9월 고점 대비 톤당 약 300 유로 하락

10월말~11월초에 인도되는 황다랑어 가격은 전월(톤당 3,250~3,350 유로) 대비 급락했다. 다양한 업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가격 하락은 참치캔 판매가 예상보다 느리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무역상인 첫 번째 소식통은 “황다랑어 가격은 최근 고점에서 톤당 약 300 유로 하락했으며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 어업 그룹의 임원인 두 번째 소식통에 따르면 황다랑어 가격은 스페인에서 톤당 2,900~2,950 유로, 이탈리아에서 톤당 2,850~2,900 유로로 떨어졌다. 유럽 전체에서의 황다랑어 가격은 톤당 2,850~2,900 유로로 9월말 이후 톤당 300~400 유로 하락했다.

판매 관리자인 세 번째 소식통은 “10kg 이상 황다랑어 가격 하락은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완제품의 수요가 느려졌기 때문으로 이는 11~12월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소식통은 아비장, 코트디부아르, 세이셸에서의 가격이 지난달 톤당 2,600 유로로 떨어졌고 이 수준에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첫 번째 소

식통은 “세이셸에서의 가격은 표준 황다랑어의 경우 톤당 약 2,450 유로, FAD 프리 황다랑어의 경우 톤당 2,600 유로”라고 말했다.

두 번째 소식통은 “공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락할 수 없을 것이다”며 “가격 하락은 어획량이 예상보다는 많고 통조림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인도양 조업 상황은 좋았지만 쿼터를 다 채워 남은 어기 동안 조업을 중단하는 스페인 어선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네 번째 소식통은 “스페인이 통제하는 대부분의 참치어선은 쿼터 소진으로 인해 최소 12월 중순까지 대기 상태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Calvo 그룹의 Mane Calvo 대표는 한 행사에서 “매출 성장을 예상하지만 마진 하락으로 인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며 “비용과 가격을 조정하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의 가치분 소득과 2023년 소비 진전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1월 4일자

중국, 가봉 참치 산업 확대 제안

참치 가공공장 재가동이 목표인 듯

중국은 참치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가봉과 협상에 들어갔다. 지난주 가봉 수산해양경제부(Minister of Fisheries and Maritime Economy) Oswald Séverin Mayounou 장관과 중국 Li Jinjin 대사가 새로운 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회담을 가졌다.

가봉 언론사인 Gabon Review는 중국의 목표가 가봉의 어업부문을 발전시키고 10년 전 폐쇄된 참치 가공공장을 재가동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가공공장의 연간 처리 능력은 1만톤 정도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1월 2일자



PNA, MSC 반대 의견은 경쟁자로부터 자금 조달 CEO 인터뷰...결과는 전적으로 수용

지난 10월 12일 PNA 어업의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 범위 확장에 대한 분쟁 절차를 감독하는 독립 심사관(IA)은 눈다랑어와 FAD를 인증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MSC CEO인 Sangaa Clark은 IA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나, 동시에 “이번 이의제기 프로세스의 결과와 현재 다수의 타 중서부태평양 FAD 어업·눈다랑어 어업 MSC 인증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Clark은 “이러한 반대는 주로 지속가능한 참치 제품 시장에서 PNA의 상업적 경쟁자에 의해 자금을 조달받았다”며 “PNA는 참치 자원 고갈이 심하고 관리

기준이 낮은 인도양과 같은 지역의 참치 공급업체가 PNA 수역의 제품과 지속가능성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상업적으로 주도된 합법적인 정밀 조사 결과 PNA 참치 어업의 지속가능성 기준은 높아져 왔다”며 “이번 IA 결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부분은 필요한 정보의 일부가 MSC 이의 제기 프로세스에 정해진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된 것”라고 언급했다.

Clark은 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에서 많은 지적들이 제기되었고 PNA는 이를 기반으로 더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0월 20일자

Tri Marine, 눈다랑어 MSC 확장 반대에 직면 PNA 인증 확대에 반대했던 CTFF, 유사한 논거로 반대

Tri Marine사의 자회사 National Fisheries Developments는 기존 가다랑어·황다랑어 솔로몬 MSC 인증에서 눈다랑어 어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어업에 해당되는 어선은 선망선 5척과 채낚기선 4척이다.

7월 적합성평가기관(CAB) SCS Global Services가 공개 의견 초안 보고서(PCDR)에서 합

격점을 부여했고 투명참치어업연합(CTFF)은 9월 30일에 이에 대한 이의 제기 문서를 제출했다.

CTFF는 PNA 어업 눈다랑어 확장에 반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눈다랑어 어종과 관련된 어획통제 규칙에 대한 통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유사한 주장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0월 20일자



MSC 인증 가다랑어 제품 판매 약 30% 증가 가다랑어 브랜드 수 310% 증가

해양관리협회의(MSC) 인증 황다랑어 매출이 감소한 반면, 가다랑어 참치캔은 MSC 수산제품 소비량 1위를 유지했다. 한편, 미국과 남부 유럽 소비자들의 MSC 인증 참치 혼합제품 소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MSC 참치 핸드북에 따르면 MSC 인증 최종 제품의 2021~2022년 판매량은 13만 8,692톤이다. MSC는 가다랑어 제품의 판매가 2020~2021년 약 8만 5,000톤이었으나 2021~2022년 약 11만톤으로 약 30%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가다랑어 제품 판매의 대부분은 참치캔이지만, 샌드위치나 피자 등 인스턴트 식품, 펫푸드 등 다른 여러 제품도 포함된다.

지속가능 가다랑어 제품 판매 브랜드가 지난 수년간 급증했음을 감안하면, MSC 가다랑어 판매량의 급증은 놀랍지 않은 일이다. 2015년 MSC 가다랑어 제품 판매 브랜드 수는 49개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202개로 급증했다.

최근 수년간 주요 브랜드 및 기업이 캔·파우치 제품에 MSC 인증 참치 도입을 약속했다. 미국에서는 2019년부터 월마트가 Great Value Chunk Light 라인에 MSC 인증 참치를 도입했고, 지속가능 참치 최대 소비국인 독일에서는 Edeka, Lidl, Hawesta, Appel 등이 MSC 인증 참치를 제공한다. 이탈리아 Bolton 그룹은 자사 채낀기 가다랑어 MSC 인증을 자사 브랜드인 Rio Mare까지 확대했다.

MSC 인증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제품 판매는 2020~2021년 대비 다소 감소했다. 황다랑어는 전세

계 참치 어획량의 28%를 차지하지만 MSC 참치 판매 비중은 7%에 불과하다. 이러한 격차 원인 중 하나는 황다랑어 가격이 높아 피자, 참치샐러드, 샌드위치 등의 재료로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혼합제품(multiple species) 부문 매출은 증가했다. MSC에 따르면, 혼합제품의 정의는 참치 어종을 포함해 여러 수산물이 함유된 제품을 말한다. MSC 인증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이 함유된 혼합제품 판매량은 2021~2022년 약 5,000톤 이상으로, 지난해 판매량(약 2,000톤) 대비 증가했다. 이러한 제품 군에는 눈다랑어 또는 황다랑어를 혼합한 가다랑어가 함유된 소스나 파스타 제품 등이 포함된다.

MSC 핸드북에 따르면 현재 MSC 황다랑어 판매 브랜드는 106개로 2015년 대비 단 1개 증가에 그쳤고 날개다랑어 판매 브랜드는 122개로 2015년 76개에서 대폭 증가했다.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함유 제품의 수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다랑어 제품 대비 톤수는 현저히 적었다. 이는 MSC의 추정 수량이 최종 제품 순증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 함유량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MSC에 따르면, 날개다랑어 제품은 대부분 북미 지역과 남부 유럽(주로 스페인)에서 판매되었다. 흥미롭게도 유럽의 혼합 제품 판매량은 2,500톤에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럽의 MSC 황다랑어 제품군(캔, 냉동 스테이크, 병조림 등) 매출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0월 28일자



독일, MSC 참치 소비 1위 유지

북부·중부 유럽, 지속가능 참치 50% 이상 소비

해양관리협회의(MSC) 지속가능 참치 핸드북 2022년 판에 따르면, 2021~2022년 동안 세계적으로 13만 8,692톤의 참치가 소매 판매되었다. 이 중 55%가 북부·중부 유럽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었다.

북부·중부 유럽에서 MSC 인증 참치의 판매 증가는 특히 돋보였다. 2021~2022년 동안 해당 지역의 MSC 인증 참치 판매는 7만 6,359톤으로, 2017~2018년 대비 210%나 증가했다. 2020~2021년과 비교하면 1만 8,900톤이나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DACH(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3개국) MSC 인증 참치 판매량은 4만 8,547톤으로 최대 시장이었다. 3국의 인구는 독일 8,300만 명, 오스트리아 890만 명, 스위스 860만 명으로, 1인당 MSC 소비량은 0.48kg이다.

현지에서 생산된 Thai Union 산하 브랜드 Hawesta

는 100% MSC 제품으로 소매 유통되며, 프리미엄 브랜드 Appel과 함께 다양한 참치캔 샐러드 제품을 제공한다. 독일 최대 슈퍼마켓 기업 Edeka는 2020년 2월 자사 라벨 전체(GUT & GÜNSTIG, Dreimaster) 참치 제품을 태평양 지역 표시가 있는 MSC 인증 제품으로 전환했다. 할인 소매점 체인 Lidl 독일은 자사 브랜드인 Nixe의 참치캔 제품의 대다수를 MSC 인증 제품으로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캐나다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지속가능 참치 제품의 수량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2021~2022년도 판매량은 전년도 대비 704톤 감소했다. 이 지역의 MSC 인증 참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비량은 0.048kg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0월 26일자

Prince, 네덜란드 참치 제품 연말까지 100% MSC 전환

英 제품 2025년까지 100% 전환 목표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Infofish 세계참치무역회의에서 Prince 그룹의 Neil Bohannon 이사는 Prince가 2022년 말까지 네덜란드 시장에 판매할 참치 제품을 100% MSC 인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Bohannon 이사는 또한 Prince가 2025년까지 영국에 판매할 참치 제품의 100%를 MSC 인증 제품으로

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간 약 7,500만 캔(약 1만 1,000톤)에 해당한다.

Bohannon 이사는 어업개선프로젝트(FIP)에 10여 년 간 투자한 결과 특히 인도양에서 선망선단의 절반 이상이 MSC 인증을 취득해 큰 진전이 있었고, 이제 더 많은 선단이 평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1월 3일자



진짜 참치가 식물성 대체식품보다 나은 이유

대체식품은 많은 첨가제 사용, 지속가능성 등 정보 없어

나우루협정당사국(PNA) 시장개발기업 Pacifical의 Henk Brus CEO는 식물 기반 참치 대체식품이 실제 참치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Brus CEO는 Smart Protein Research가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半)채식주의자(flexitarian, 채식을 위주로 식사하되 가끔 육류나 수산물 등도 섭취하며 대체 육류·수산물 선호하는 사람) 사이에서 식물 기반 어류 통조림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Brus CEO는 식물성 참치를 홍보하는 회사와 브랜드는 참치 통조림 산업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호도된 사실은 참치가 대규모 남획으로 인해 멸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 참치 대체식품은 유럽 슈퍼마켓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Pacifical 조사에 따르면 21개 슈퍼마켓 체인 중 6개만이 식품성 참치 통조림 대체식품을 하나

이상 판매하고 있다.

Brus CEO는 소비자가 이러한 대체식품을 맹목적으로 신뢰해서 안되는 중요한 이유를 강조했다. 해당 제품들에는 지속가능성, 인권 정책, 살충제 사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제조에 첨가제가 많이 사용된다.

네슬레(Nestle) 제품은 조직, 형태, 다른 브랜드에 비해 더 나은 맛으로 현재까지 최고의 경쟁자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매우 고가이며 실제 참치보다 비싸다.

Brus CEO는 플렉시테리언이 참치캔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를 원한다. 따라서 CEO는 인증 참치의 맛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참치가 매우 저렴한 단백질 동력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가장 중요한 점으로 지속가능한 참치는 환경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공급망에서도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0월 31일자

TUNACONS-GFW, MOU 체결

동부태평양 투명성 강화 목적

에콰도르 비영리단체 TUNACONS가 동부태평양 열대참치 어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학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박 위치정보 공개 플랫폼 글로벌피싱위치(GFW)와 협업을 발표했다. TUNACONS에 속한 8개 회원사와 선박 60척은 최근 체결된 MOU를 통해 해당 어업의 투명성 개선을 목적으로 데이터 교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Guillermo Moran TUNACONS 이사와 Tony

Long GFW CEO가 체결한 이번 MOU의 목표는 참치 어업 관련 데이터 교환을 위한 당사자 간 협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TUNACONS는 회원사 선망선단 60척 또는 이들이 직접 운영하는 선박의 VMS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0월 20일자



ILO 기준 준수하는 최초의 대만 연승선 선원 거주공간 기준 준수

대만 참치연승협회는 대만에서 어선원노동협약(ILO C188)을 준수한 연승선이 처음으로 건조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보도했다.

해당 어선은 Yi-ting Tsjeng사의 Chien Yuan Ming No. 88호로 15명이 승선한다. 선실당 사용 인원이 3명 이하이며 침대 크기가 70cm × 180cm이다. 선내 화장실은 각각 최대 5명이 공유한다. 온수 샤워와 깨끗한 식수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식당이 있으며 천장 높이는 190cm이다.

협회 사무총장 Ho Shih-chien은 기준을 준수하면 건조 비용이 30%까지 증가한다고 언급했다.

이 신조선은 8월 25일에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어선 등록부에 등재되었다. 길이는 33m이고, 2개의 송풍 냉동기(blast freezer)가 설치되어 있으며, 308톤의 어류 적재 능력을 갖추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0월 24일자

EU-마다가스카르 어업 협정 합의 톤당 230 유로 지불, 척수 30% 감소

EU와 마다가스카르가 새로운 어업 협정에 합의했다.

EU 국적 선단은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참치 1톤을 어획하기 위해, 230 유로를 지불해야 하며 1만 4,000톤의 참치를 어획할 수 있다. 마다가스카르 EEZ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EU 선단의 척수는 94척에서 65척으로 30% 줄어들었다.

마다가스카르 수산청색경제부 장관은 “이전 협정에 비해 44% 인상된 금액으로 합의했지만 만족스럽

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일본참치어업협동조합과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마다가스카르가 이 계약으로 얻는 이득은 100만 유로이다. 12척의 일본 연승선이 입어할 수 있으며 기간은 2년이다. 과거 계약에서는 옴서버 승선이 의무였지만 이제 6,000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면 승선을 회피할 수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1월 2일자



日 연구센터 “페루 EEZ 양륙량 39% 감소”

JAFIC “내년부터 아르헨티나 오징어 어획 감소 예상”

일본 수산자원연구센터 부어자원부 부어 제3그룹의 마츠이 모에(松井萌) 연구원은 지난 20일 개최된 일본 전국오징어가공업협동조합이 개최한 웹 세미나에서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아메리카 대왕오징어와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의 올해 어획 동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마츠이 연구원은 페루 EEZ 2022년 7월 말 시점 대왕오징어 누계 어획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39% 감소한 22만 5,000톤이라고 설명했다. 마츠이 연구원에 따르면 공해 어획 상황은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불명확하다.

마츠이 연구원은 2022년 9월 말까지 아르헨티나 EEZ 내 일렉스오징어 누적 어획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7% 증가한 26만 5,000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만 선단 등이 조업하는 포클랜드제도 주변 어획은 58% 감소한

7만 3,000톤에 그쳐, 양 수역을 합한 어획량은 지난해의 약 80%라고 마츠이 연구원이 설명했다.

한편,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JAFIC)의 사카이 미츠오(酒井光夫) 기술전문원은 “지금까지 데이터 해석 결과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 어획량이 6~8년 주기로 최고점에 도달하며, 현재 주기의 최고점은 올해일 가능성이 높고 내년부터 감소 추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통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의 이전 어획 최고점은 약 100만톤을 기록한 2015년으로 관측되며, 다음해인 2016년부터는 15만톤으로 급감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10월 24일자

日 냉동 오징어 1~9월 반입량 7만 2,114톤

반입량 23% 증가...해외산 원료 의존도 증가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1~9월 냉동오징어류(빨강오징어, 대왕오징어, 일렉스오징어 포함) 반입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3% 증가한 7만 2,114톤이다.

일본 상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자국산 오징어 홍어로 인해 일본 내 원료가 부족한 상황이며, 올해 어획도 부진하기 때문에 가공원료를 수입산 살오징어나

남미산 오징어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kg당 평균 단가는 21% 상승한 496 엔으로, 원료 가격 상승 및 엔화 약세 등의 영향이 컸다고 상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 3만 3,291톤(19% 증가), 페루산 1만 8,056톤(30% 증가), 칠레산 7,399톤(11% 증가), 아르헨티나산 3,851톤(17% 증가)을 기록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11월 7일자



러시아 2023년 명태 TAC 설정

서베링해 49.3% 증가, 오호츠크해 6.2% 감소

러시아 농림부는 극동 조업 구역의 2023년 명태조업 시즌 총허용어획량(TAC)을 올해 192만 7,000톤에서 6.5% 증가한 205만 9,700톤으로 설정했다.

이 수치는 GroundFish Forum에서 발표된 어획량 예측치 177만 5,000톤(2.8% 감소)과 대조적이다.

다만, 주요 어장인 오호츠크해의 TAC는 89만 7,000톤으로 올해 쿼터 95만 6,000톤에 비해 6.2% 감소했다. 오호츠크해의 4개 하위 구역인 북오호츠크해와 서캄차카의 TAC는 각각 32만 2,900톤, 캄차카-쿠릴은 25만 1,200톤, 동사할린은 10만 9,600톤으로 모두 소폭 감소했다.

한편, 서베링해 TAC는 49.3% 증가한 61만 2,000톤이다. Karaginsky 하위 구역은 올해 수준인 6만 700톤인

반면, Petropavlovsk-Komandorsk 하위 구역은 7만 4,800톤에서 7만 5,400톤으로 소폭 증가했다.

남쿠릴 하위 구역의 TAC는 올해 13만 5,000톤 대비 소폭 증가한 13만 5,300톤, 북쿠릴 하위 구역 TAC는 0.7% 증가한 9만 4,100톤이다.

서사할린 하위 구역의 TAC는 9,000톤으로 올해 1만 1,800톤에서 23.8% 감소했다.

Chukchi해의 TAC는 3만 1,900톤으로 올해 3만 7,200톤에서 14.7% 감소한 반면, Chukotka해의 TAC는 60% 증가한 8,000톤이다.

Primorye 하위 구역의 TAC는 28.9% 증가한 2만 6,700톤이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10월 25일자

러시아 11월 1일 시점 총 어획량 약 410만톤

극동 명태 어획량 170만톤

러시아 수산청에 따르면 2022년 11월 1일 시점 러시아 총 어획량은 410만톤을 기록했다.

극동 지역 어획량은 총 300만톤을 기록했다. 수산청은 이 중 명태 어획량이 지난해 대비 20만 6,200톤 증가한 170만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태평양청어 어획량은 지난해 대비 5만 9,300톤 증가한 35만 3,800톤을 기록했다. 태평양연어 어획량은 27만 500톤을 기록했다.

러시아 북부 지역 어획량은 45만 3,400톤으로, 이 중 28만 8,700톤이 대서양대구이다. 서부 지역 총 어획량은 6만 1,600톤으로, 이 중 1만 9,300톤이 발트

해 청어이다.

볼가-카스피해 지역 어획량은 6만 4,600톤이며, 아조프-흑해 지역 어획량은 3만 3,600톤이다.

해외 수역, 협약 수역(convention areas), 공해 어획량 합계는 47만 7,500톤을 기록했다.

2021년 러시아의 총 어획량은 505만톤으로, 이 중 355만톤이 극동, 54만 1,300톤이 북부, 7만 8,630톤이 서부, 10만 500톤이 볼가-카스피, 6만 4,000톤이 아조프-흑해 지역이었다. 2021년 러시아의 해외 수역, 협약 수역, 공해 어획량 합계는 65만 7,300톤이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1월 3일자



러시아 수산업계, 서방 제재에 대한 대안 모색

신규 시장 개척 중이나 여전히 중국 시장 중시

러시아는 많은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2022년 첫 7개월 동안 수산물 수출 실적 증가를 이뤘으나, 최근 수개월 간의 수산물 무역 둔화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상반기 수출량은 110만톤(2021년 동기 대비 18% 증가)이며, 첫 7개월 수출량은 112만톤(24.2% 증가)이다. 첫 7개월 수출 금액은 31억 달러로 20.6% 증가했다.

러시아 수산물 수출 주요 시장은 한국, 중국,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일본이었다. Dmitry Patrushev 러시아 농림부 장관은 2022년 9월말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수출국을 지난해 58개국에서 올해 60개국으로 늘렸다.”라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중국 수출이 타격을 입자 새 수산물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개시했다. Sergey Levin 농림부 차관에 따르면 이러한 전략이 성과를 거둬, 2021년 한국 수출이 전년도 대비 35% 증가, 네덜란드 수출이 70% 증가, 일본 수출이 260% 증가했다.

중국 시장 재개방 또한 러시아의 수산물 수출을 한층 가속화했다. Levin 차관은 2022년 상반기 동안 2021년 동기 대비 중국행 수출량이 67%, 수출액이 50% 증가했다고 말했다.

Levin 차관은 브라질, 카타르, 나이지리아가 2022년의 핵심 목표이며, 또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쿠웨이트, 브루나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수출 허브로 삼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러시아 수산 대기업 노레보(Norebo)의 Sergey Senninkov 부사장에 따르면, 노레보는 멕시코, 브라질, 아프리카, 카리브해 국가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인스턴

트 제품 등 전 제품군에 대한 다양한 시장개척에 나섰다.

그러나 타 기업은 여전히 중국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러시아어업회사(RFC)의 Savely Karpukhin 제1총국장은 최근 V Global 수산물포럼에서 “1순위도 중국, 2순위도 중국, 3순위도 중국”이라고 천명했다.

RFC는 최근 브라질에 약 1,000톤의 명태를 수출했으나, 브라질 소비자들이 가격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인지했다. Karpukhin 국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가격 경쟁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Karpukhin 국장은 RFC가 시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Karpukhin 국장에 따르면 RFC는 신규 선상가공 트롤선에서 생산한 연육(surimi)을 중국에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많은 러시아 수산기업들이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이러한 경향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수의과학식품위생감시국(Rosselkhoznadzor)에 따르면 북부 어장의 핵심 산지인 무르만스크 지역 수산물 수출이 2022년 1~8월 동안 지난해 동기 대비 6.9% 감소한 12만 1,000톤을 기록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와 사할린 지역의 1~8월 수출량은 2.7% 감소한 81만 4,000톤을 기록했다.

무르만스크 지역의 감소는 미국의 제재로 인한 게 수출 감소로 추측되나, 연해주와 사할린의 수출 감소 원인은 불명확하다. 러시아 수산물 수출은 2022년 긍정적인 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관측되나, 세계 곳곳의 물가상승 등 경제적 요인과 무역 지위 변화로 인한 영향 등으로 인해 지역과 부문 간 상황은 격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0월 27일자



美 알래스카 명태 생산, 효율성 증가

딥스킨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

알래스카 명태 생산자들은 2022년 TAC가 지난해 대비 19%나 감소했음에도 어업 시즌을 긍정적으로 끝마쳤다.

미국 명태 어업회사 American Seafoods의 Rasmus Sorensen 글로벌영업 총괄 부사장은 10월 흰살생선 업계 주요 임원들이 모인 Groundfish 포럼에서 올해 A, B시즌이 어업 효율성에 있어서 기록적인 한 해였고, 이전에 비해 일일 어획 비율이 개선되었으며, 저가치 상품인 민스 생산 비율이 확연히 낮아지는 등 질적인 면에서도 이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설명했다.

한 어획가공회사 임원은 올해 명태 B시즌이 “매우 빠른 조업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임원에 따르면 명태 업계는 맥도날드, 버거킹 등 퀵서비스 식당에서 사용되는 딥스킨(deepskin, 껍질·지방 제거)

거) 제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부가가치 상품 생산의 손실을 거의 복구했다.

운임·보관 비용 상승이 여전히 업계에 있어 골칫거리이나, 베링해 어업회사의 한 임원에 따르면 딥스킨 가격은 톤당 5,000 달러 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딥스킨 생산으로의 전환은 미국 수요가 증가하고 알래스카 명태의 해외 시장 유출이 감소하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미국 시장의 연육 수요도 증가했다. 2022년 7월까지 생산량은 8만 8,000톤이다.

이러한 수요 증가로 인해 미국 업계는 2023년 계약을 서두르는 분위기가 아니며, TAC 추세를 관측한 다음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어업·가공회사 임원은 전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11월 1일자

美 업계 “러시아 명태 쿼터 증가, 미국 영향 제한적”

서베링해 명태 자원 남획 가능성 주시 필요

미국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러시아 명태 쿼터 증가가 미국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베링해 명태 가공 기업의 한 임원은 러시아의 2023년 명태 쿼터 증가 조치가 미국 시장에 타격이 될 수도 있으나, 증가분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H&G(머리, 내장 제거)인 이상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링해 알래스카명태 어업 회사의 한 임원은 “북미 지역은 자연산 알래스카 명태의 가장 활발

한 시장”이며, 현재 북미 시장 1위 상품은 맥도날드 등 미국의 영향이 지배적인 퀵서비스 식당에 사용되는 딥스킨(deep-skin, 껍질·지방층 제거 필렛)이라고 밝혔다.

알래스카 Dutch Harbor 명태 어업 회사의 한 임원은 러시아 명태 쿼터 증가가 시장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나, 서베링해 명태 자원이 남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10월 26일자



2023년 세계 흰살생선 공급 안정적 유지 예상

대서양대구 공급 큰 타격 우려

지난 10월 19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Groundfish Forum에서 미국 어업·가공업체 Trident Seafoods와 덴마크 가공업체 Espersen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전세계 자연산 흰살생선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대서양 어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발표에서는 2023년 전세계 흰살생선 어획량을 692만톤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도 예상치 대비 1% 미만 감소한 수치이다.

최대 단일 흰살생선 자원인 알래스카 명태 예상 생산량은 전년도 예상치와 거의 비슷한 335만 4,000톤으로 추산되었다.

미국, 캐나다의 알래스카 명태 어획량은 5% 증가한 132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러시아 어획량은 2.8% 감소한 177만 5,000톤으로 예상된다.

내년 대서양대구 예상 어획량은 13.7%나 감소한

92만 9,000톤으로, 이 예상치가 정확할 경우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전세계 대서양대구 어획량이 100만톤 미만을 기록하게 된다.

노르웨이 대구 예상 어획량 또한 27%나 감소한 27만 8,000톤으로,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러시아 대구 예상 어획량은 10% 감소한 30만 6,000톤으로 예상된다. 아이슬란드 대구 예상 어획량 또한 6.2% 감소한 20만 9,000톤으로 추산된다.

전세계 해덕대구 예상 어획량은 1.3% 증가한 30만 8,000톤으로 추산된다.

북대서양대구(Saithe) 예상 어획량은 7.5% 증가한 37만 1,000톤으로 예상되며, 이 중 노르웨이의 어획량은 12.7% 증가한 23만톤으로 추산된다. 민대구(hake) 예상 전세계 어획량은 4.3% 증가한 123만톤으로 추산된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10월 19일자

日 “동해 명태자원 호전”

2023년 ABC 1만 5,300톤

일본 수산청과 수산연구교육기구가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자원평가결과에 따르면, TAC 대상 어종인 명태 동해 북부계군의 2023년 어기(4월~다음해 3월)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은 1만 5,300톤으로, 2022년 TAC인 7,500톤의 2배 이상이다.

일본의 명태 동해 북부계군 TAC는 2015년부터 1만톤 미만이었으나, 2018년생과 2019년생

자원의 풍부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친어(산란능력이 있는) 자원량은 2024년 여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로 인해, 10년 후인 2031년 여기에는 친어량이 목표관리 기준치를 넘어설 확률이 76%로 상승했다. 다만 본래 목표 최대치인 최대지속생산량(MSY)을 넘어설 확률은 상승한 후에도 6%에 그쳤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10월 26일자



美 소비자 알래스카 명태 선호도 증가 추세

대구·틸라피아와 아직 차이 커

미국 시장조사 기업 Ketchum Analytics의 전무 이사 Mary Elizabeth Germain이 지난 10월 17일 미국 알래스카명태생산자협회(GAPP) 연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조사가 시작된 2019년 이후로 자연산 알래스카 명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친숙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Germain 전무에 따르면 알래스카 명태 소비자 친숙도는 2019년 52%에서 2022년 56%로 상당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조사 시작 이후 알래스카 명태가 기록한 가장 높은 수치이다.

Ketchum사가 알래스카 명태에 대한 의견을 타 어종과 비교한 2022년 조사에 따르면, 해덕대구의 친숙도는 명태와 같은 56%이나, 대구(76%)와 틸라피아(78%)는 명태와 여전히 차이가 크다.

어종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은 알래스카 명태의 경우 48%이며 해덕대구, 틸라

피아, 대구는 각각 50%, 52%, 57%를 기록했다.

그러나 '호감도'의 성장률 측면에서 알래스카 명태는 2021년 대비 2%p 성장한 81%로, 2021년 대비 1%p 성장한 대구(85%)에 비해 빠른 추세를 보였다.

알래스카 명태는 '30일 내로 먹을 가능성' 부문에서 지난해 대비 7%p 성장한 31%를 기록했다. 이는 조사 대상인 4개 어종 중 가장 빠른 성장세이다.

응답자들이 알래스카 명태에 대해 알게 되는 경로의 경우, '친구와 가족'이 가장 높은 35%로 지난해 대비 11%p나 상승했다.

지속가능성 중요성에 대한 응답은 69%로 2021년 대비 8%p 증가했다. 조사 참가자들이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중요하다고(76%) 말한 첫 번째 요인은 어류가 바다에서 안전하다는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공급 확보와 어업 관리가 그 뒤를 이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10월 24일자

러시아 최대 가공공장 ROK No.1 파산 위기

코로나19·국제 제재 등 여파

러시아 언론 TASS에 따르면, 러시아 최대 어류 가공공장 ROK No.1이 38억 루블(약 6,210만 달러) 규모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본사를 둔 ROK No.1은 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

아에 가해진 국제 제재의 여파로 인해 원자재 및 관련자재 조달 소요기간 증가, 수요 감소, 원료 부족, 공급망 격차 등 복합적 악재를 겪으면서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10월 24일자



美 명태, 기록적 가격에도 타 단백질 대비 경쟁력 유지 쇠고기·닭고기 대비 저가

미국 시장정보 출판기업 Urner Barry 자료에 따르면, 싱글프로즌(1차 냉동) 명태 PBO(뼈, 가시 제거) 가격은 기록적인 수준인 톤당 5,000 달러까지 상승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 단백질 공급원과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UndercurrentNews의 미국 도매가격 자료에 따르면, 싱글프로즌 명태 가격은 돼지고기보다는 비싸지만 쇠고기, 닭고기보다는 저렴하다. 다만 다른 단백질 공급원 가격이 하락세인 반면 명태 가격은 상승세이다.

미국 최대 명태 선상가공 업체인 ASG의 차기 CEO이자 상임고문인 Einar Gustafsson은 “명태 가격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비싸지 않은 편이다.”라

고 말했다. Gustafsson 상임고문은 또한 명태의 유럽 판매량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지금이 인플레이션 상황임을 감안해야 하며,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어류 섭취를 선택하지 않게 되는 지점이 어디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Urner Barry의 시장보고원 겸 분석가인 Gary Morrison은 “명태가 타 단백질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Morrison은 “명태는 5년 전 가격 경쟁력이 높았으나, 지난 5년 간 가격이 75% 상승했으며, 특히 올해 가격 상승폭이 컸다.”라고 분석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SeafoodSource, Intrafish, 2022년 11월 2일자

모조 게 대신 수리미가 낫다는 연구 결과 GAPP, 변경해 나가야

GAPP(알래스카명태생산자협회)가 의뢰하고 시장조사 기관인 Ketchum이 실시한 미국 소비자 대상 온라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는 모조 게(imitation crab)라는 용어에 압도적으로 익숙하지만 선호도는 수리미 수산물(surimi seafood)이 더 좋았다.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의 76%는 수리미 수산물이라는 용어에 대해 ‘선호(good)’라는 의견을 표시했지만 모조 게는 58%였다.

Ketchum의 글로벌 분석 책임자 Mary

Elizabeth Germaine은 10월 17일 시애틀에서 열린 GAPP 컨퍼런스에서 “프랑스·일본과 같은 다른 대규모 수리미 시장에서는 동 제품의 수산물 본질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미국에서는 게나 랍스터의 저렴한 대안으로 소개되어 ‘모조’라는 이름이 고착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아울러, 모조 게살보다 수리미라는 용어가 제품 가치를 더 높여주며, 구축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10월 25일자



日 10월 말 시점 공치 양륙량 약 1만 1,000톤

지난해 대비 증가했으나 여전히 적은 편, 11월이 관건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JAFIC)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일본 전국 공치 양륙량은 1만 1,000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다. 9월 말 시점까지의 양륙량은 지난해 대비 20% 적었으나, 10월 양륙량이 지난해 동월 대비 약 3,000톤 많은 7,100톤까지 증가해, 지난해 대비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총 양륙량이 사상 최저치(약 1만 8,300톤)였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20% 증가했어도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적은 수준이다.

현재까지 여전히 공해 중심으로 형성된 어장에서의 어획도 산발적인 수준이다. JAFIC 관계자는 “어군이 넓게 형성되어 있고, 어장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어획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10월 하순 한때 일본 200해리 내에 어장이 형성되기도 했으나, 어선간 격차가 있어 일일 어획이 1톤 미만에 그친 어

선도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관계자는 지적했다.

어체가 전반적으로 작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JAFIC가 홋카이도 네무로·하나사키에서 어체 사이즈를 집계한 결과 109~114g이 전체의 43%, 88~94g이 55%를 차지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소형화로 인해 어획 마릿수가 늘어도 톤수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어가는 공치 품귀 현상으로 인해 고가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이나, 고유가 등 비용 문제로 인해 경영 측면에서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관계자들은 재작년 11월 한 달 동안 1만 4,000톤을 양륙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11월 4일자

NPFC 제7차 연례회의 2023년 3월로 연기

하부조직 회의 18~25일, 연례회의 23~25일 예정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NPFC) 행정·과학위원회 회의는 일본에서 2023년 3월 18~25일 개최 예정이며, 제7차 연례회의는 3월 23~25일 개최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잠정적 기본 모델을 사용하여 태평양 공치의 자원 평가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데이터 준비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자원평가 및 관리전략평가(MSE)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연령구조모델(Age-structured

model)을 개발 중이다.

‘NPFC 태평양 공치 어획 회원국 대상 MPE 평가에 관한 소규모 작업그룹’은 최근 관리 목표 후보군과 기준점을 선정했다. 최근 회의에서는 어획통제규칙(HCR)에 대한 몇 가지 선택지와 HCR 평가 시뮬레이션 플랫폼이 논의되었고, 2024년 HCR 설정을 목표로 하는 구현 일정 초안이 마련되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10월 25일자



제41차 CCAMLR 연례회의 종료

남극해 보존 협상 교착 상태

제41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연례회의가 새로운 해양보호구역(MPA) 설정과 어업 규제에 대한 큰 진전 없이 종료되었다.

2009년 CCAMLR는 남극 생태계 보존을 위해 MPA 네트워크 지정을 추진하여 2009년 사우스오크니제도 남쪽에 1개, 2016년 로스해에 다른 1개의 MPA를 지정했다. 그러나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6년 연속으로 새 MPA 설립에 대한 3건의 제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기타 여러 보존 관련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이탈리아 CCAMLR 위원인 Orazio Guancial는 “남극조약은 의견일치 원칙(consensus principle)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반대가 있을 경우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크릴과 이빨고기(메로) 어업 활동의 더 나은 규제를 위한 새 보존조치 채택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다만 위원회는 저층어업에서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생물학적 다양성이 높은 8개의 새로운 취약해양생태계(VME)를 승인했다.

중국, 러시아의 MPA 설립 반대는 남극 크릴 어업 개발에 대한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CCAMLR에서 칠레를 대변하는 칠레남극연구소(INACH)의 연구원이자 MPA 제안서 초안 작성에 참여한 Cesar Cardenas는 남극반도 보호구역 설정이 전면 어업 금지가 아닌 일부 제한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남극 최대의 어업 국가이자 세계 크릴 생산의 65%를 관리하는 Aker Biomarine을 보유한 노르웨이는 MPA 신설 제안 3건에 모두 동의했으나 어업 활동의 보장을 요청했다.

한편, CCAMLR 회의에 참석한 인도 대표단 측에 따르면 인도는 현재 CCAMLR 지역 크릴·이빨고기 어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CCAMLR 개막 연설에서 MPA 제안 지지를 선언하는 한편, 러시아를 언급하며 비판했으나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10인의 과학자가 기후 변화 및 상업적 어업이 남극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남극 어업에 더 엄격한 제한이나 유예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논평이 게시되었다. 그러나 CCAMLR는 크릴, 이빨고기에 대한 기존 어업 쿼터를 재확인하면서 이미 시행된 어업 보존조치를 2년 연장하는 데 그쳤다.

CCAMLR 정책 자문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생물학자 Rodolfo Werner는 “이번 회의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소식은 남극반도에 8개의 새 VME가 등록되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호, 해면동물, 거미불가사리 등 취약종으로 구성된 해당 구역은 저층 어업으로부터 영구적으로 보호된다.

CCAMLR 회의에서 합법적이빨고기어업자연합(COLTO)과 남극보호연합(ASOC)은 일부 국가의 반대로 인해 핵심 사안의 진전이 불가능한 현행 의사결정 방식의 대안을 고려하자는 공동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협상이 선의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관점에서 진행될 경우에만 합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한다.”며 “점점 복잡해지는 국제 이해관계 속에 CCAMLR가 직면한 많은 문제 중 가장 실질적인 사안에 대한 진전이 최근 들어 없는 상황에서, 회원국들이 현재의 교착 상태 해결책을 고려하길 권고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 기사 출처: Mongabay, 2022년 11월 7일자



아르헨티나, 2021년 이빨고기 조업 연구 발표

9월까지 3,080톤 어획...지난해 동기 대비 21% 증가

아르헨티나 국립수산과학원(INIDEP) 소속 과학자들은 2021년 조업 수집 데이터(아르헨티나 공식 통계 자료, 옵서버 수집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빨고기 어장의 생물학적 어획량에 대한 정보를 발표했다.

어선 13척(트롤 12척, 연승 1척)의 조업 결과가 기록되었고, 트롤 12척 중 11척은 이빨고기 전용 어선이었다. 아르헨티나 연방어업위원회는 2021년 이빨고기 TAC를 3,700톤으로 설정했다.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어획량은 3,08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어획량 대비 21% 많다.

Argenova XXI호, Argenova XXII호, Centurión del Atlántico호, Echizen Marú호, San Arawa II호 5척의 트롤선이 전체 어획량의 99%를 어획했고, 나머지는 연승선인 Argenova XIV호가 어획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단은 남위 47도 남쪽에서 조업했고, 대부분의 어획은 소해구(quadrants) 5461, 5462, 5463에서 이루어졌다. 연승선의 경우 남위 37도와 남위 41도 사이의 대륙사면(continental slope, 대륙붕이 끝나는 대륙붕단에서 경사가 급해지는 지역으로 수심이 100에서 2,000미터)에서 조업했다.

연구진은 “선상 옵서버들이 수집한 생물학적 샘플

데이터에 따르면 1차 성징기로 간주되는 크기인 82cm 미만 개체의 어획 비율은 전체의 13%로, 최대 허용치인 20% 미만을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한 이빨고기의 태그 부착·탈착 과정이 계속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2004년 해당 작업이 시작된 이래 약 6,009마리에 태그가 부착되었고 121마리가 재어획 되었다. 지난해 102마리의 이빨고기에 새롭게 태그가 부착되었다.

INIDEP은 지난 2년 동안 행해진 분석 결과, 선단 활동에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지표, 치어(Juvenile, 성체와 유체 사이의 어느 정도 성장한 단계) 어획 비율, 혼획 비율 등을 감안하면 이빨고기 어업은 확립된 조치를 준수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빨고기 어업이 3개의 소해구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연승선의 참여는 매우 제한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어획량이 가장 많은 구역에서의 수심 제한, 옵서버 의무 참관 보장 등 어업 관리 절차를 지속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APJMN(이빨고기 치어 보호구역)을 구성하는 3개 소해구에서 수심 800m 이하 어업을 금지하고 혼획·폐기를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 기사 출처: MecroPress, 2022년 10월 10일자



드라이 컨테이너 운임, 정상에 가까운 수준

리퍼 컨테이너 운임 여전히 높은 수준, 내년 1분기 크게 하락 예상

드라이 컨테이너 운임은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리퍼 컨테이너 운임은 드라이 컨테이너만큼의 하락폭을 보이지 않고 있어 참치 자숙로인과 원어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1월 3일 Drewry의 세계컨테이너 지수(WCI)에 따르면 40피트 컨테이너(FEU) 가격 하락이 지속됐다. 현재 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평균 운임은 최고점인 지난해 9월 1만 377 달러보다 71% 낮은 3,050 달러이다. 이는 5년 평균인 3,754 달러보다 19% 낮은 수치이다. Drewry는 운임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주요 태평양항단 노선인 상하이-로스엔젤레스 운임은 40피트 컨테이너당 2,364 달러로 지난해 대비

76% 하락했다. 로스엔젤레스-상하이, 로테르담-상하이 운임은 각각 1% 하락한 1,165 달러, 876 달러이다. 로테르담-뉴욕 운임은 2% 상승한 7,426 달러이다.

Drewry는 리퍼 해운 전망, 연간 리뷰에서 3분기에 40피트 리퍼 컨테이너 평균 운임이 6,750 달러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의 리퍼 컨테이너 운임이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며 내년 1분기에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컨테이너 운임 정보업체 Xeneta는 지난 3개월 동안 북유럽 모든 주요 무역로에서의 40피트 컨테이너 운임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드라이 컨테이너와 달리 운임이 여전히 지난해 동기보다 높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1월 4일자

中, 푸젠성에 첫 산업용 크릴 항구 건설

1만 5,800톤 규모 크릴 어선 신조 예정

중국 푸젠성 롄장현에 국가 단위의 어항 건설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자국 최초의 산업용 크릴 항구를 배치할 예정인 롄장 어업기지는 저우산, 룽청 산업 허브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국가 단위 어항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롄장 기지에 설치될 항구의 규모는 약 1,533 헥타르이다. 해당 기지에는 현대식 국제 어항, 국제 수산물 교역센터, 지능형 콜드체인 물류센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중 크릴 항구는 푸젠성의 Zhengguan 어업

개발주식회사가 총 9억 1,600만 위안(약 1억 2,500만 달러)을 투자해 조성 중이며, 약 4헥타르 규모가 될 예정이다. 해당 항구는 매년 15만톤의 크릴을 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Zhengguan사는 또한 690만 위안을 투자해 중국 최대의 크릴 전용 선상가공선인 Fuyuan Yu 9199호를 건조하여 허브의 어업 및 가공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Fuyuan Yu 9199호는 전장 131m, 폭 24m, 높이 12m, 톤수 1만 5,800톤이 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0월 26일자



MSC, 4년 만에 새 어업 표준 공표

위기종 새 접근방식, 유령어구 등

해양관리협의회(MSC)가 4년간의 업계 자문 및 검토를 거쳐 어업 표준 3판을 공표했다.

MSC는 “새 표준은 ETP종(멸종위기, 멸종우려종, 보호종)에 대한 새 정의와 더 광범위한 보호를 포함한다.”며, 더 많은 종이 ETP종으로 간주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획 관련 요구사항은 이제 모든 해양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등의 종에도 적용된다.

MSC는 “상어 지느러미 채취를 인증 어업에서 배제하고 인증 어업의 유령 어구(ghost gear, 아무런 조치 없이 바다에 버려져 환경에 해를 끼치는 어구) 방지 및 감소에 대한 책임을 늘리기 위한 새 정책을 도입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유령 어구 관련 요구

사항은 이제 집어 장치 또는 FAD에도 적용될 예정이며, 인증 어업은 유실 FAD에 대한 해명 및 FAD 유실 방지 대책을 입증해야 한다.

MSC는 “조업 활동, 특히 공해상에서의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모니터링·감독하고, 어획 전략에 대한 국제 협약을 위해 더욱 강력한 요구사항을 설정했다.”라고 밝혔다.

새 표준은 2023년 5월부터 모든 신규 어업 인증에 적용되며, 이미 인증된 어업은 어획 전략에 대한 신규 접근법의 조기 적용을 채택하지 않는 한 최대 6년의 신규 요구사항 채택 기한이 주어진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0월 26일자

프랑스, 어업용 연료 지원 연장

회사당 지원 상한 금액도 인상

Hervé Berville 해양부 장관은 연료 지원 매커니즘을 내년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수산업에 대한 연료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 대응책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11월 15일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제 내년 2월까지 지원이 계속된다.

연료 지원은 리터당 0.25 유로로 유지되며 상업적 어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이미 책정된 4,500만 유로 외에 2,000만 유로에 이르는 재정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국가 지원 상한선 인상을 추가로 얻어냈다. 상한선은 7월에 6만 5,000 유로였고 10만 5,000 유로까지 인상된 뒤 이제 어업 회사당 33만 유로로 인상되었다.

이는 더 많은 선박에 연료 지원을 제공하며, 이전에 제외되었던 여러 척의 선박을 보유한 어업 회사에 완전히 적용될 수 있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2년 11월 5일자



오메가3, 수면 개선·행복 증진 효과?

日 학계 “EPA 섭취 시 행복감 증진 가능성 있어”

일본 DHA·EPA협회와 일본수산유지협의회는 26일 도쿄에서 개최된 온라인 병행 공개강연회에서 오메가3 지방산이 수면 개선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연구결과와 EPA를 섭취하면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상관관계를 발표했다.

시가의과대학 수면센터장 카도야 히로시 특임교수는 DHA와 수면의 관계에 대해 강연했고, 수면의 역할 및 메커니즘, ‘수면부채’에 의한 경제 손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카도야 특임교수는 DHA나 EPA를 섭취하는 사람은 수면의 질이 높고 오랫동안 잘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통해 “(DHA와 EPA가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이 수면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소개했다. 동시에, DHA에 의한 수면 개선이 곤란한 사람의 비율은 10% 정도였

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EPA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까?”라는 주제로 강연한 시가현립대학원 인간간호학연구과의 츠보이 히로히토 교수는 EPA와 행복감의 관계를 횡단적 연구(연구하려는 대상의 문제나 현상을 단 하나의 특정 시점에서 조사하는 것)로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서 여성 의료복지종사자 133인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주관적인 행복감이나 의욕을 조사한 결과, EPA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2회 이상 조사하는) 종단적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확언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고 츠보이 교수는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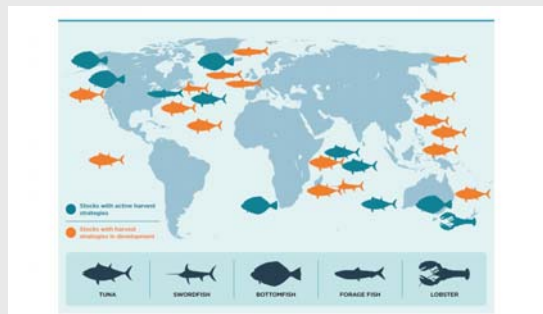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10월 28일자

FAO, 어획전략 관련 웹사이트 개설

어획전략 지식 허브 역할 기대

해양재단(The Ocean Foundation, TOF)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어획전략(HS) 관련 새로운 웹사이트, HarvestStrategies.org를 개설했다.

이들은 이 웹사이트가 전 세계 어업의 어획전략(HS)을 개발·지지·이행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지식 허브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웹사이트는 어획전략의 의미와 관리 목표를 설명하고 사례 연구와 과학 간행물, 지역수산기구의 어획전략 계획, 대화 그룹을 게시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1월 4일자



수산물, 낮은 탄소 배출량·높은 영양 밀도

수산물로 단백질 공급원 이동, 상당한 탄소 배출 저감 효과

네이처 학술지에 실린 '수산물 영양 다양성 평가·기후 영향 정보, 보다 포괄적인 식단 조언 (Assessing seafood nutritional diversity together with climate impacts informs more comprehensive dietary advice)'에 따르면 참치 등 수산물은 영양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육상 동물 단백질, 특히 붉은 고기(소·양·돼지고기 등)에 비해 온실가스(GHG) 배출량이 낮다.

이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200마리 이상의 자연산 및 양식산 해양동물의 대량 생산 데이터와 영양 밀도(NDS)를 조사하고 이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비교했다. 영양 밀도는 21가지 영양소를 기반으로 계산되었다. 온실가스를 영양 밀도로 나눈 기후 영향과 영양의 비율은 식용 수산물 kg당 CO2로 표시되었다.

참치 등 수산물은 상당한 양의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과 미량 영양소 비타민 D, 비타민 B12, 셀레늄, 요오드, 철, 아연, 인 등을 제공한다.

연구에 따르면 가장 낮은 배출과 함께 가장 높은

영양 이점은 자연산 소형 원양어류, 연어과 종, 홍합·굴과 같은 양식 이매패류를 섭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와 같은 참치 종은 영양 밀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자연산 어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은 연료 연소로 평가된 4종의 참치 중 선망선에서 어획되는 가다랑어·황다랑어는 연승선·채낚기선에서 어획되는 날개다랑어·눈다랑어 대비 환경 영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서 영양 밀도당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가다랑어·황다랑어·날개다랑어는 2등급에 속했다.

연구원들은 수산물로 단백질 공급원을 이동한다면 수산물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낮기 때문에 상당한 배출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동시에 영양학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알래스카 명태의 경우 2등급을 차지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0월 21일자

전세계 어업 부문에서 연간 10만명 이상 사망

푸 자선재단, 국제 협정·협약 비준 촉구

어업안전재단(FSF)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년 10만명 이상의 어업 관련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푸 자선재단이 의뢰했다.

FSF에 따르면 빈곤,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지정학적 갈등, 기후 변화가 어업인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푸 자선재단은 관련 국가들이 케이프타운 협정, 항만국조치협정, ILO 어선원노동협약과 같은 국제 협정·협약을 비준하도록 촉구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1월 4일자



덴마크, 식품 기후영향 표시 라벨 도입 추진

EU에서는 2024년 제안 준비

덴마크 정부는 식품의 기후 영향을 표시하는 국가 관리 라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라벨은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는 최초의 기후 라벨로, 식품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가 제품 생산을 통해 발생시키는 총 탄소 배출량을 표기하도록 요구한다. 해당 라벨은 소비자가 스스로 배출량 감축을 선택하고 공급망 변화를 위해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덴마크의 해당 라벨 의무화하를 제지한 바 있다. 그 이유는 EU가 2024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사한 제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Prehn 장관은 새 라벨에 대해 “참여 여부는 선택이지만, 소비자들은 기후 라벨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iels Jensen 덴마크식품공급협회 CEO는 작업반이 내년 시범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 덴마

크 총선으로 인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Jensen CEO는 육류가 전부 적색(낮은) 등급으로 표기되고 채소류가 전부 녹색(높은) 등급으로 표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유사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제품군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작업 중인 논제라고 설명했다.

세부 사항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덴마크 수산 부문은 이러한 라벨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라벨 개발 상황에 정통한 한 수산업계 임원은 수산업계의 이윤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기피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라벨로 인해 수산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또는 장기간 바다에 나가 조업하는 선박이 어획한 어종에 의존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11월 3일자

노르웨이-러시아 대구 쿼터 감축 합의

56만 6,784톤 확정

노르웨이와 러시아는 화상회의를 통해 2023년 어업협정에서 북동대서양 대구 쿼터 20% 감축한 56만 6,784톤으로 확정되었다.

노르웨이, 러시아, 제3국가에 할당된 비율은 기존과 같았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의 2023년 쿼터는 26만 782톤이 될 예정이다.

해덕대구 2023년 총 쿼터는 17만 67톤으로 확정되었으며, 노르웨이는 8만 4,177톤을 할당 받는다.

러시아 정부는 노르웨이 정부가 제재 추가 조치 시 2023년 어업협정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10월 26일자



日 수산청, 2021년 수산백서 발표

2020년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 약 23.4kg

일본 수산청이 수산 및 양식업 동향, 2021년 회계연도 수요공급 패턴, 팬데믹이 일본 수산업계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한 2021년도 수산백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일본의 대중 소비 패턴에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 전역에서 비축이 가능하고 조리가 간편한 가정용 냉동식품 수요가 증가했다. 신선 수산물 매출액은 2020년에 가정 내 요리 빈도가 높아지면서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2021년 4% 하락했다. 소비자들의 온라인 수산물 구매 빈도는 상승했다.

일본의 수산물 수출은 2020년 감소했으나 2021년 다시 반등했다. 이는 수입국의 코로나19 추세에 따른 수요 변동이 원인으로 관측된다.

팬데믹은 일본의 식용 수산물 자급률에 영향을 미

쳤다. 일본의 자급률은 1964년 113%로 정점에 도달한 뒤 2002년부터 2002년까지 3년 연속 53% 정도로 하락세였으나, 2020년 회계연도의 자급률은 57%로 소폭 회복되었다.

일본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001년 회계연도에서 1인당 40.2kg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20년 1인당 23.4kg으로 감소했다. 연간 1인당 육류 소비량은 2011년 처음으로 수산물을 앞지른 후 계속해서 증가 추세이다. 2013년 이후 일본 식품 가격은 육류, 수산물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상승 중으로, 수산물 소비 감소는 이러한 물가 상승 추세와 일치한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11월 1일자

10월 노르웨이 고등어 수출 호조

지난해 대비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 여전해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SC)에 따르면 노르웨이 10월 고등어 수출량은 지난해 동월 대비 23% 증가한 7만 5,639톤이었다. 수출 금액은 55% 증가한 14억 크로네였다. 일본, 한국,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었다.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1억 2,800만 크로네로 지난해 동월 대비 65%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출량은 27% 증가한 1만 5,882톤이었다.

NSC의 Jan Eirik Johnsen 원양종 책임자는 “주요 아시아 시장의 수요는 여전히 양호하며 평균 가격이 24%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장

에 대한 수출은 현재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고등어 어업은 몇 주 동안 꽤 느린 조업 이후 고등어가 북해 어장에 도달하기 시작하며 43주차에 1만 6,557톤을 양륙했다.

Johnsen은 “고등어가 다시 북해를 찾아와 기쁘고 더 많은 어획량을 희망한다”며 “북해에서 조업된 고등어는 다소 작았지만 품질이 매우 좋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10월 26일자



바닷가에서-2

정 연 복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는
바닷가에서

새삼스레 인생살이의
단순한 이치를 배운다.

영원한 기쁨도 영원한 슬픔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것

지금 슬픔에 젖은 이여
눈물의 홍수에 빠지지 말라

머잖아 반드시
기쁨의 날은 오리니

지금 기쁨에 겨운이여
기쁨의 포로가 되지 말라

기쁨의 저편에
슬픔이 기다리고 있으니.





10월 오징어 국내 동향

풍랑주의보 등 해황 악화로 전월 대비 생산량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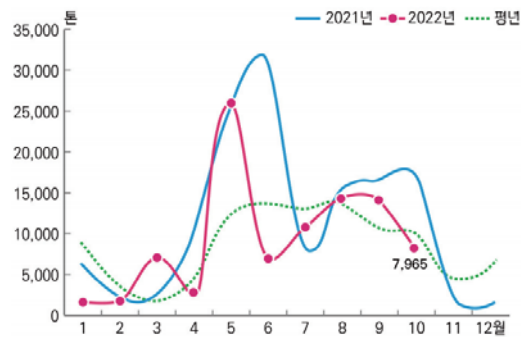
□ 생산동향(10월 오징어 생산량, 해황 악화로 감소)

10월 오징어 생산량은 전월(13,843톤)보다 42.5% 감소한 7,965톤으로, 작년(13,843톤) 및 평년 동월(9,743톤)에 비해서도 각각 53.1%, 18.2% 적었다. 이는 연근해 오징어 어군의 밀도가 낮았고, 잦은 풍랑주의보 등으로 연근해 조업이 둔화되었으며, 원양산 반입량도 줄었기 때문이다.

지역별 위판량의 경우, 구룡포수협 1,410톤, 후포수협 547톤, 경주시수협 347톤 등 동해안 지역으로의 위판량이 3,714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부산공동어시장 277톤, 여수수협 251톤 등 남해안으로 784톤이 위판되었다.

10월 원양산 오징어 반입량은 3,386톤으로 전월(6,904톤)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작년의 두 배, 평년의 네 배 이상 많았다.

오징어 누계 생산량은 9만 2,136톤으로 작년보다는 32.1% 적었으나, 평년과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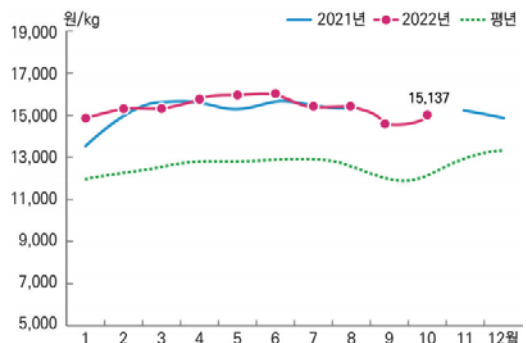
□ 가격동향(10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4.6% 상승한 kg당 15,137원)

10월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전월(6,020원) 대비 1.7% 하락한 kg당 5,919원이었다.

반면, 오징어(신선냉장) 소비자가격은 전월(15,250원) 대비 20.8% 상승한 kg당 18,420원이었다.

오징어(냉동)의 도매가격은 kg당 9,187원으로 약보합세를 보였으며, 소비자 가격은 kg당 15,137원으로 전월(14,470원) 대비 4.6% 상승했다.

9월 명절 물가안정용 비축물량이 방출되며 일시적으로 소비자가격이 하락하였으나 10월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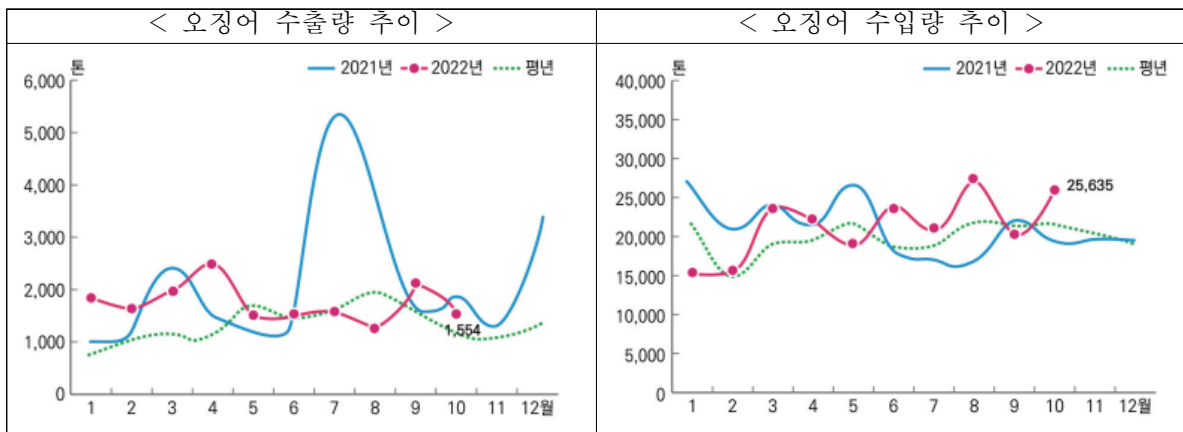


□ 수출입동향(10월 오징어 수입량, 전월 대비 28% 증가한 2만 5,635톤)

10월 오징어 수출량은 1,554톤으로 전월 대비 18.0% 감소했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오징어가 1,203톤, 기타 오징어는 351톤이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480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미국 459톤, 일본 360톤 등으로 나타났다.

10월 오징어 수입량은 2만 5,635톤으로, 전월 대비 28.3% 증가했으며,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32.5% 많았다. 국가별로는 페루산이 1만 3,541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국산 7,297톤, 칠레산 3,158톤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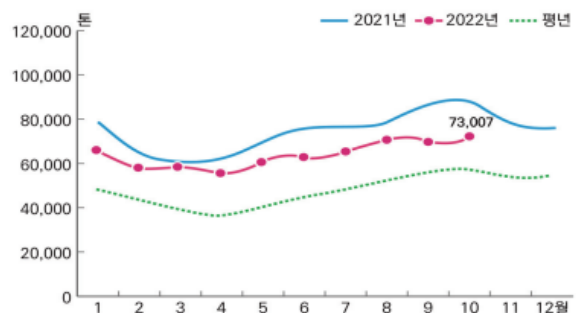
10월까지의 누적 수입량은 21만 2,033톤으로 작년과 비슷했으며, 평년보다 6.3% 많았다.



□ 재고동향(10월 말 기준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5% 증가)

10월 말 기준 오징어 재고량은 생산 부진에도 수입이 크게 늘며 전월 대비 5.1% 증가한 7만 3,007톤이었다.

11월 연근해 오징어 생산은 평년 수준으로 예상되나 원양산 반입이 줄어 재고량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료 출처: KMI 수산물측 11월호



10월 명태 국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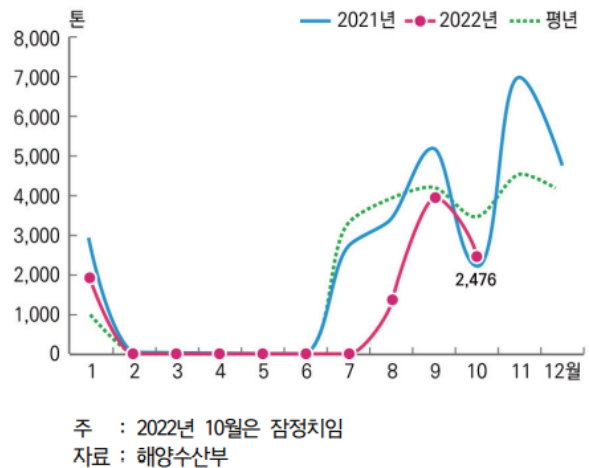
원양명태 반입량 감소, 소비자가격은 하락

□ 생산동향(10월 명태 반입량, 전월보다 감소한 2,476톤)

10월 원양명태 반입량은 전월 대비 36.6% 감소한 2,476톤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8.2% 많았으나 평년보다 28.1% 적었다.

2022년 10월까지 누적 반입량은 9,564톤으로 2022년산 조업이 늦게 시작되었고 쿼터 소진률도 적어 작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42.2%, 40.0% 적었다.

한편, 10월 31일까지 어획된 원양명태는 1만 4,931톤으로 작년(22,580톤)에 비해 33.9% 적었으며, 배정된 쿼터의 52.4%를 소진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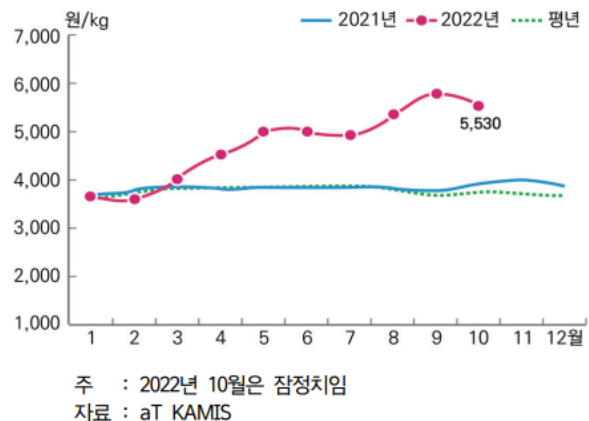


□ 가격동향(10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3% 하락한 kg당 5,530원)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3.4% 하락한 kg당 5,530원이었다.

이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진행된 대형소매점 중심의 할인행사 및 10월 중순부터 시작된 정부비축물량 상시방출 할인행사의 영향이 컸다.

한편, 10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4.4% 하락한 kg당 2,471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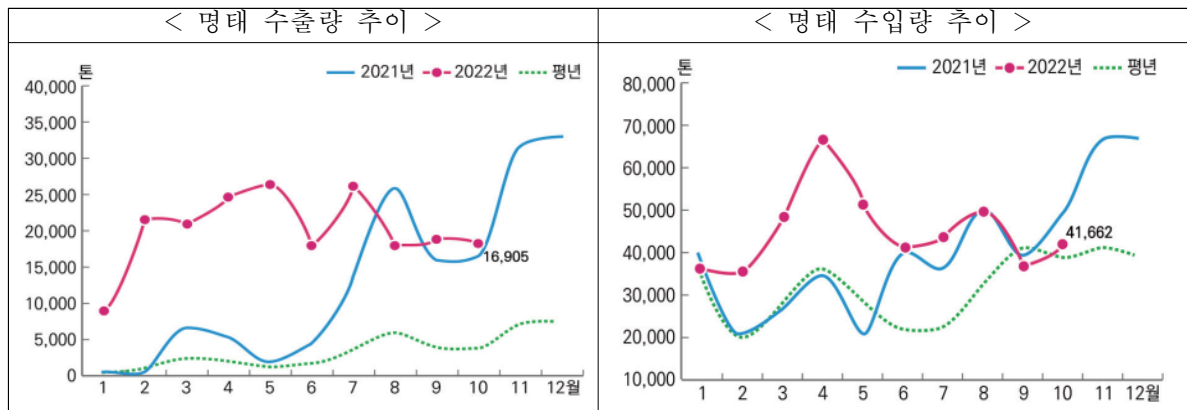




□ 수출입동향(10월 명태 수입량, 4만 1,662톤으로 전월 대비 8% 증가)

10월 명태 수출량은 전월(18,197톤) 대비 7.1% 감소한 1만 6,905톤이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으로의 수출량은 1만 5,649톤으로 전월(17,233톤) 대비 감소했으며, 베트남으로 767톤 등이 수출되었다. 작년 동월 대비 3.8%, 평년에 비해서는 4배 이상 많았다.

명태 수입량은 전월(38,457톤)보다 8.3% 증가한 4만 1,662톤이다. 작년 동기 비해 13.0% 적었으나 평년 동기 대비 9.5% 많았다.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는 러시아산 냉동명태가 2만 3,666톤, 미국산 냉동연육 7,453톤, 러시아산 냉동필렛 6,498톤이었음. 10월까지 누적 수입량은 45만 1,687톤으로 작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26.4%, 42.4%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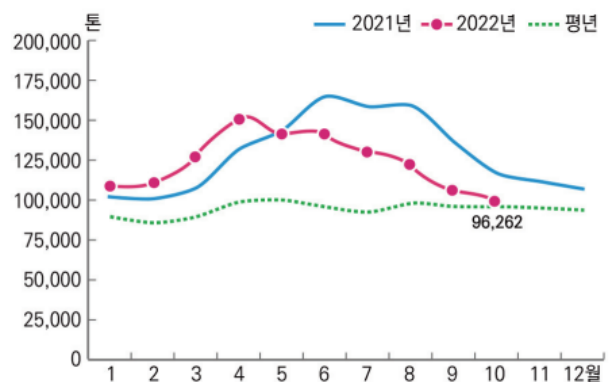


□ 재고동향(10월 재고량, 전월 대비 감소)

10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9만 6,266톤으로 전월 (106,866톤) 대비 9.9% 감소했다.

이는 반입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對중국 재수출 물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관측된다.

재고량은 작년 동월에 비해 16.6% 적었으며, 평년 동월보다는 1.8% 많았다.



* 자료 출처: KMI 수산물측 11월호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2023년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협력 요청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월 26일 오전, 태평양 도서국 12개국의 총리, 외교장·차관 및 대표들,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사무총장과 한자리에 모여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회복력 있는 푸른 태평양을 위한 비전 : 자유, 평화, 번영을 주제로 △한-태평양도서국간 실질협력(기후변화, 개발협력, 해양·수산 등) △역내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2023년 한국에서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환영하고,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국은 내년부터 모든 PIF 회원국을 초청해 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의 폭과 깊이를 한층 확대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태평양 지역의 장기 개발 전략인 '2050 푸른 태평양대륙전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략

은 태도국이 205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태평양 지역의 안전, 평화, 번영 및 회복력 달성)과 비전 달성을 위한 7개 중점분야로 구성된 내용으로 지난 7월 제51차 PIF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됐다.

한국은 2008년 출범한 한-PIF 협력기금을 통해 해당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불법어업, 해양오염 대응 등에 연간 150만달러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태도국 측은 기후 재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불법어업 행위 감시, 항만 인프라 개발, 해양오염 방지 등과 관련한 협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는 2011년부터 3~4년에 1회씩 정례 개최됐으며 지난해 열린 4차 회의에서 정상급 격상, 개최 주기 단축(2년) 등이 합의됐다.

美 MMPA 동등성 평가 1년 연기

제도보완 등 제반사항 점검

미국 해양대기청이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라 대미 수산물 수출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양포유류 보호 수준에 대한 동등성 평가 결과 발표가 당초 예정보다 1년 연기됐다.

동등성 평가는 대미 수산물 수출국이 미국 국내 수준에 상응하는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11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에 동등성 평가 대응방안에 대해 제출한 바 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올해 11월 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대미 수산물 수출국 약 130여개 국가의 동등성 평가 신청 자료를 검토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함을 사유로 평가 결과 발표 시기를 1년 연장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한다고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단체 접견

박진 외교부 장관은 4개국 외교장관과 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7일 오후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1970년 통가와외의 외교관계 수립 이후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음을 높게 평가하고, 개발협력, 해양수산, 인적교류와 같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마셜제도, 통가,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외교장관과 연쇄 양자회담을 가졌다.

(마셜제도) 마셜제도가 운영 중인 8개 상주공관에 주한대사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거론하는 등 지난 30여년간 양국이 각별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공동의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통가) 태평양도서국 중 한국과 최초로 수교한 통

가와 1970년 이래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11월부터 양국간 무사증 입국 재개에 따른 인적교류 확대를 비롯해 수자원,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팔라우)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태평양도서국으로서 코로나19 이전 직항편을 통해 매년 1만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방문하는 등 양국이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교통연계성 강화를 통한 관광 등 인적교류 확대 및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파푸아뉴기니) 양국간 무역 규모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지속 성장해 왔음을 평가하고,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항만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등 민간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해양수산, 인프라, 에너지, 투자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세계 12개 국가에서 한국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린다

2022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 11.5~27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식품의 세계 인지도를 높이고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27일까지 '2022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K-Seafood Global Weeks)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6회째를 맞은 '2022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 행사'는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11월 25일) 등 세계적인 소비 성수기를 활용하여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12개국

51개 유통채널의 온·오프라인 매장(260여개 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국 아마존(amazon), 중국 타오바오(Taobao)와 같은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개설한 'K-씨푸드관' 7개소에서 다양한 비대면 홍보·판촉을 진행하여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수산식품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41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총회 결과 보존조치 이행평가 결과, 이빨고기 조업국 중 유일하게 모든 규정 준수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제 41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행 위원회와 총회가 개최되었다.

CCAMLR 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제안서는 회원국들에게 국제법상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CCAMLR 수역에서 조업하는 회원국의 선박들은 채택된 제안서의 의무사항을 따라야 하며, 위반 시 국제법상의 제재대상이 된다.

이번 CCAMLR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등과 공동으로 「웨델해」와 「동부 남극해」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지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해 회원국들의 채택을 촉구했다. 또한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 등과 관련한 협력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결의안의 개정안도 공동 발의해 동 개정안이 13년 만에 통과되는데 기여했다.

한편, 그동안 경쟁 선박에 조업위치 노출을 이유로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을 꺼놓는 조업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4시간 작동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제안서가 채택되어 23/24년 어기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크릴 조업 시 남극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미국/호주가 제출한 크릴보존 관리강화 제안서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지지하였으나, 일부 회원국 반대로 이번 총회에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매년 회원국이 제출한 이빨고기와 크릴조업 신청에 대해 우리나라는 회원국 중 가장 많은 9척(이빨고기 6척, 크릴 3척)을 신청해 모두 승인되었다. 총회한 주 전 개최한 「이행위원회」의 지난해 회원국 선박의 보존조치 이행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10개 이빨고기 조업국 중 유일하게 모든 규정을 준수한 나라로 평가받았다.



제3회 SOI-세계 해양-수산 국제기구 토론회 개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논의

해양수산부는 25~28일, 부산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Post-2020 체제 지역 리더십의 새로운 시대 구축'이란 주제로 '제3회 SOI-세계 해양-수산 국제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토론회는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이 주최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주관으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세계식량기구(FAO), 유엔환경계획(UNEP), 프랑스생물다양성연구소(OFB)가 공동후원했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세계식량기구, 유엔환경계획 지역대표를 비롯해 50여개 지역 해양 및 수산 관리기구 대표들과 국내외 전문가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2018년 제2회 토론회의 결과물인 '서울 선언 +2 이후 국제사회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수산정책분야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 사례와 성과를 중심으로 Post-2020 세계 생물다양성전략체제 하의 지역해 해양-수산 국제기구 간 과학적 협력기반 구축방안, SOI 글로벌 토론회 목표의 구체적 이행방안 등이 주요의제로 다뤄졌다.

해양수산부는 토론회 2일차인 10월 26일 한국 특별 분과를 개최해 우리나라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 사례와 성과(해양수산분야 국제원조(ODA)사업 현황 및 계획,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블루카본 추진현황 및 국제협력, 지역수산기구를 통한 국제어업관리 증진 및 기여)를 소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국제 해양 및 수산 기구 간 협력 방안은 올해 12월 개최 예정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해수부, 해경, 지자체,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11.7부터 3주간 실시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특별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으로 하여금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음식점 내 표시: 고등어, 오징어 등 15개 품목) 하도록 하고, 수산물 수입·유통업체에는 유통이력을 신고(냉장명태, 냉동꽂치 등 17개 품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의

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설·추석·김장철 등 성수기에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김장철 특별점검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김장철 소비가 증가하는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역시 김장철 수입이 늘어나는 염장새우,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故 김명년 대림수산 전 회장

공무원으로 시작해 수산가공업 대부로...우리나라 2대 어보 번역하기도

김명년 전 대림수산(현 사조대림) 회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향년 98세로 세상을 떠났다. 수산업계의 원로 김명년 전 회장은 한국 수산업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을 정도로 시대의 한 획을 그은 인물로서 평가된다. 부산고등수산학교(현 부경대)를 졸업하고 해무청 수산국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해무청 수산국 제조과장과 농림부 수산국장을 거쳐 수협 부회장을 맡는 등 수산정책과 자금 흐름에 대한 굴지의 전문가로 성장했다. 또한 1969년에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 대표로서 '수산자금의 유통과정'을 발표하는 등 국제적 역량을 펼치기도 했다.

김회장은 1962년 농림부 수산국장 시절 한일회담 어업대표로 참여했다. 1964년 국립수산진흥원장에 발탁된 상태에서 한일회담 대표로 참여하여 1965년 조약체결을 이끌어 냈다. 1966년 수산청 초대 차장을 거쳐 1968년 패속정 운영사인 한려개발 사장으로 민간 경영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 1979년부터 1995년까지 16년 동안 대림수산의 전문 경영인으로 활동했다. 김 회장이 재직하는 동안 대림수산은 △1979년 당시 23억 규모 투자해 연안어선 14척 건조 △1985년 미국 수산물 가공합작공장 건설(알레스카 현지합작법인) 추진 △1989년 대림 鮮어묵 출시로 수산물 가공품 산업 진출 및 종합식품회사로 토대 구축 △1992년 대림햄 생산 및 가공식품 해외 수출 도약(즉석국) 등의 성과를 이루며 한국 수산업계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는 1981년 26명 중 24명이 사망했던 대림호, 1988년 원양어선 선원 집단 탈출 사건이 벌어진 라스팔마스항 등, 아픈 역사의 현장을 같이했다.

김명년 전 회장은 퇴임 후 자산어보와 함께 국내



3대 수산업 관련 고문헌에 속하는 서유구의 전어지와 김려의 우해이어보를 부분 번역했다. 1972년 4회에 걸쳐 〈현대해양〉에 번역문 일부를 기고했으나 바쁜 사업 일정으로 인해 중단된 뒤 35여 년 만인 2007년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후원하여 전어지를 번역 출간했다. 출간 당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전문 한문번역가가 아닌 수산인의 시각에서 전어지를 번역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우해이어보를 번역 출간했다.

고인은 생전에 전세계를 돌며 수집한 물고기와 관련된 소장품 850점을 국립수산물과학원에 기증하기도 했다.

* 기사 출처: 현대해양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상무	신현애	589-1602	해외협력본부장
이사	이형균	589-1603	경영지원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1621	비서, 출납업무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강성현 부장	589-1604	총괄
	공길웅 과장	589-1605	총무, 자금
	조성환 과장	589-1606	사무관리, 차량운영
	이형균 이사	589-1607	총괄(겸직)
	김영수 과장	589-1608	기획, 홍보
	김민재 사원	589-1609	원양뉴스, 생산통계
	소기동 부장	589-1610	총괄
	김효상 과장	589-1611	무역제도, 수출통계
	최동환 주임	589-1619	노사, 선원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신현애 상무	589-1612	총괄(겸직)
	최봉준 과장	589-1613	국제협력
	백상진 주임	589-1614	참치선망
	정윤경 사원	589-1615	참치연승
	진호정 부장	589-1616	총괄
	조성주 과장	589-1617	북양, 콩치
부산지부	최상진 사원	589-1618	오징어, 기타트롤
	이승환 사원	589-1620	북양-콩치 지원
	-	(051)	총괄
	김현애 과장	253-3388	확인업무(수출,반입등)
	공인	051)	차량계량
	이동주 팀장	253-3391	차량계량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이상목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국제협상 지원팀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기구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관	해외진출 지원팀	김수민 전문관	044-868-7363	일반/지역수산기구
	국제협상 지원팀	류진호 행정관	044-868-7837	OFIS, 해외수산투자, 행정		-	044-868-7836	ODA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기구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통계, 협의회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0343-4742525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홍	233-303-200995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extra.co.nz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675-321-8137 jc651016@gmail.com
아르헨티나	이상우	54-223-495-0712 kargeexport@gmail.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51호

발행처
한국원양산업협회

발행 : 2022년 11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현명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통조림용 참치조림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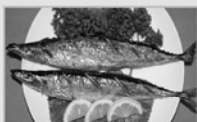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조기류(민어과)

제수용 생선으로 제격



공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납니다.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